

한국어의 방언

이영제 · 신우봉 · 손다정 · 손혜진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방언이란 무엇인가?	1-1	언어와 방언: 방언(方言)이란 무엇인가?
		1-2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1 -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1-3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2 -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1-4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3 - 한국어의 지리와 역사 문맥적 특징
		1-5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방언의 음운적 특징
		1-6	한국어 방언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 - 몇 가지 예시
2	방언구획, 방언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방언변화	2-1	언어지도와 방언구획
		2-2	한국어의 방언구획
		2-3	방언 조사와 방언 연구의 의의
		2-4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방법
		2-5	방언분화론
		2-6	방언접촉론
3	중부방언과 동북방언	3-1	개별방언론
		3-2	중부방언의 음운적 특징
		3-3	중부방언의 문법적 특징
		3-4	중부방언의 어휘적 특징
		3-5	동북방언의 음운적 특징
		3-6	동북방언의 문법 및 어휘적 특징
4	서북방언과 동남방언	4-1	서북방언의 음운적 특징
		4-2	서북방언의 문법 및 어휘적 특징
		4-3	동남방언의 음운적 특징 1
		4-4	동남방언의 음운적 특징 2
		4-5	동남방언의 문법적 특징
		4-6	동남방언의 어휘적 특징
5	서남방언과 제주방언	5-1	서남방언의 음운적 특징
		5-2	서남방언의 문법적 특징
		5-3	서남방언의 어휘적 특징
		5-4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징
		5-5	제주방언의 문법적 특징
		5-6	제주방언의 어휘적 특징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한국어의 사회 방언 1	6-1	사회 방언의 개념
		6-2	사회 방언학의 발달
		6-3	언어 정책
		6-4	한국의 언어 정책
		6-5	표준어
		6-6	한국어의 표준어
7	한국어의 사회 방언 2	7-1	언어 분화의 요인
		7-2	연령과 언어 변이1
		7-3	연령과 언어 변이2
		7-4	시대와 언어 변이1
		7-5	시대와 언어 변이2
8	한국어의 사회 방언 3	8-1	신어
		8-2	성별과 언어 변이1
		8-3	성별과 언어 변이2
		8-4	성별과 언어 변이3
9	한국어의 사회 방언과 의사소통	9-1	계층과 언어 변이
		9-2	전문어
		9-3	상황과 언어 변이
		9-4	언어와 의사소통
		9-5	문화 간 의사소통
10	세계 속의 한국어	10-1	중국 지역 재외동포의 한국어
		10-2	일본 지역 재외 동포의 한국어
		10-3	미국 지역 재외 동포의 한국어
		10-4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재외 동포의 한국어

강좌 개요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표준어로서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지역, 계층, 성별 등 여러 요인별 다양한 한국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된 강좌이다. 전반부에서는 방언의 정의를 비롯해 방언의 발생 원인과 확산 요인이 방언의 발생, 분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방언 수집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개괄하며, 한국어의 지역 방언별 음운적, 문법적, 어휘적 특징을 파악한다. 후반부에서는 사회 방언의 개념 및 언어 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하며 시대별, 성별, 계층별 언어 변이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의 한국어의 발달 배경과 특징을 이해한다.

강좌의 학습목표

-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의 총체를 이해한다.
- 한국어의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방언과 의사소통, 한국어교육에서의 방언의 중요성,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한국어에 대해 이해한다.
- 언어와 방언의 관계와 방언 연구의 방법론과 성과를 이해한다.

기대효과

모든 개별 언어는 여러 형태의 방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그 언어가 살아 있다는 방증의 하나이다. 방언은 발생 원인에 따라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어 방언학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어의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의 특징을 분석하고 실제 경험해 봄으로써 한국어의 다양한 방언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방언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목은 한국어의 지역 방언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실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 간이나 계층 간의 언어 차이를 연구하는 사회 방언, 표준어와 정서법 문제, 언어적 디아스포라까지도 함께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방언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실제 사용 양상을 학습하면서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1주차

방언이란 무엇인가?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언어와 방언: 방언(方言)이란 무엇인가?
2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1 -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3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2 -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4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3 - 한국의 지리와 역사, 문화적 특징
5차시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방언의 음운적 특징
6차시	한국어 방언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 - 몇 가지 예시

1차시 언어와 방언: 방언(方言)이란 무엇인가?

학습 목표

- 방언의 정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어 방언의 실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영화, K-무비 중에서 한국어 방언으로 주로 대사가 이루어진 영화의 영상 일부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한국어 잘 들어보셨나요? “대통령님 보시소. 우리 마을에는 길이 읍니다.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이런 대사에서 ‘보시소, 읍니다, 주시소’ 같은 표현은 아마 한국어를 좀 배운 분들이라 하더라도 생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처음 나온 대사인 ‘수학 경시대회 1등’ 이런 표현은 표현상으로는 한국어 표준어와 다르지 않지만 억양이 많이 다르죠. 한국인들은 이런 한국어를 흔히 사투리라고 말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사투리를 방언 또는 지역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 사투리, 방언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한국어의 사투리, 방언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어가 무엇인지부터 잘 알아야겠죠. 한국어는 언어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뜻합니다. 언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처럼 실제 각 나라의 말이나 글의 형태로 접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국어일 겁니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한국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은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인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한국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어란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어떤 단어 뒤에 문법적 뜻을 가진 성분이 교착해서, 즉 붙어서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

어 ‘저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문장에서 ‘저’라고 하는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는’이라고 하는 문법적 뜻을 가진 성분이 붙어서 표현되는 것을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통적으로, 즉 역사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타이 어족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터키어 등이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순, 즉 단어가 배열되는 순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로 되어 있는 영어나 중국어와 큰 차이가 있죠. 한편, 꾸미는 말이 꾸미를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새 책, 착한 마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전에서는 한국어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한반도 전역 그리고 제주도나 그 밖의 섬에서 쓰이는 한국어가 모두 같은 말과 같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언어에서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로 말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방언, 즉 사투리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방언은 이처럼 지역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말의 체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방언의 개념은 사투리, 즉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전에서 말한 것처럼 한반도의 여러 지역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와 같이 한반도의 지리적 구분에 해당하는 곳에서 쓰이는 말을 우리는 한국어의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란 이렇게 방언과 방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방언은 음운, 즉 말의 소리, 어휘, 단어, 문법, 단어나 문장의 구조 등이 다르더라도 한 언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의 방언 중에서 광둥어의 경우 중국어 표준어인 보통화, 푸통화와 비교했을 때 음운, 어휘, 문법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한 언어, 즉 중국어에 속한 것입니다. 한국어에서 표준어와 제주어, 즉 제주 방언도 마찬가지로 한 언어에 속하는 것이죠.

사투리는 방언의 개념을 어느 한 지방에서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라는 것으로 좁게 정의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정의만 놓고 보면 표준어와 사투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어 중에서 표준어라고 정의된 말들도 사실은 지역 방언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어서 표준어도 결국 하나의 지역 방언, 즉 중부 방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일부는 사투리를 고쳐야 하는 말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준어라고 해서 방언보다 우위에 있는 말이 아니고 방언의 일종일 뿐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준어는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임의적으로 선택된 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한편, 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를 방언학, dialectology라고 합니다. 방언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이 수업에서도 자주 언급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용어와 개념들을 통해 이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한국어에 속하는 여러 가지 말들,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한국어 방언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의 특성상 학술적 개념과 체계에 기반해 한국어의 방언을 설명해야 하는 만큼 방언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국어의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의사소통에서 방언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한국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인데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한국어들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방언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과 성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수업의 목표에 해당하겠습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함께 공부해볼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어와 한국어, 또 한국어 방언과 방언학의 주요 용어와 개념들을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방언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의 지리,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배경 지식도 간략하게 공부해 볼 것입니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국어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한편, 한국어 방언의 언어적 특징 개관을 통해 한국어 어휘, 음운, 문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후 수업에서는 각 방언의 음운이나 문법, 어휘적 특징이 무엇인지, 연령, 세대, 계층에 따른 언어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방언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국어 지역 방언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어 방언학의 주요 개념과 용어들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신우봉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릴 겁니다. 한국어의 방언 구획, 즉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언을 쓰는지에 대한 지리적 구별을 알아보게 됩니다.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위해 필수적인 방언 조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이고요. 또 방언이란 어떤 식으로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방언의 분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고 방언 간의 접촉과 경계에서 일어나는 방언 관련 언어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학에서 말하는 개별 방언론을 살펴보고 하나의 방언이 언어 체계를 이루고 있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방언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적인 분포를 우리는 ‘방언 분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언 분포에 기반해서 구역을 나누는 것을 ‘방언 구획’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 구획에 따라 한국어의 방언을 구분하면 중부, 동북과 서

북, 동남과 서남, 제주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한 각 지역 방언의 음운, 문법, 어휘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한편 ‘방언’하면 지역 방언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언학에서 정의하는 방언은 지역 방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 집단, 즉 사회 계급이나 연령, 성별,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말이 분화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회 방언은 흔히 지역 방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회 방언은 이처럼 사회적 집단에 따라 언어 사용의 특징이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의 변이와 언어 분화는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회 언어학에서는 계층이나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등 사회적 요인이 언어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언어학자들의 주된 업적 중에는 인도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 계급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의 차이나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들 간의 언어적 차이 등 계층이나 인종 간 차이에 의해 형성된 사회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말이 매우 달라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비효율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표준어, 즉 standard language라는 것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하나의 말과 글을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 표준어와 방언이 관계와 표준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의 모음인 언어 규범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손다정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요.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방언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손다정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앞서 한국어는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는 사전의 정의를 함께 보았는데요. 근래 들어 한국과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 속에서 한국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어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대규모로 이주해 살면서 지금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한국어들을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본, 중국, 구소련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과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볼 것입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2022년, 정승철.
-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2015년, 최명옥.

2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1 -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학습 목표

- 방언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인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모음조화, 구개음화, 두음법칙, 매개모음 등 용어와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방언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사투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방언학은 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방언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방언학의 주요 용어와 개념, 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언학의 하위 분야인 방언 음운론, 방언 문법론, 방언 어휘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공부해야 하고 그래야 한국어 방언의 주요 특징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언어와 비교해 한국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음운, 문법, 어휘적 특징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중에서 음운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유형론, typology란 언어 유형론을 뜻하며 언어학의 한 방법론을 말합니다. 유형론은 언어학에서 단순하게는 세계 여러 언어들을 조사해서 그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유형론은 단순한 조사와 분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반화하고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보편적인 성격을 탐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모음조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모음조화란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을 말합니다. ‘ㅏ, ㅑ’ 따위의 모음을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ㅏ, ㅑ’ 따위의 양성 모음은 뒤 음절에 양성 모음이 출현하고요. ‘ㅓ, ㅕ’ 따위의 음성 모음은 뒤에 같은 음성 모음이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깎아, 길이 좁아’의 ‘깎아, 좁아’ 같은 경우는 같은 모음인 ‘ㅏ, ㅏ’ 또 같은 양성 모음인 ‘ㅑ, ㅑ’가 앞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또 ‘숨어, 굶어’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음성 모음인 ‘ㄴ, ㄷ’가 연속해서 이어져 있죠. 이런 예들과 함께 한국어의 의성어나 의태어에서도 이런 모음조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짝반짝, 번쩍번쩍’ 같은 예도 모음조화 현상이 반영된 것인데요. ‘ㅏㅏㅏㅏ, ㅓㅓㅓㅓ’ 같은 모음이 앞뒤에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알록달록, 얼룩덜룩’, 또 ‘물이 졸졸 흐른다’의 ‘졸졸’, ‘졸졸 흐른다’에서의 ‘졸졸’ 같은 것들도 모음조화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음법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음법칙이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 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두에 오는, 즉 단어의 첫 부분에 오는 ‘ㄹ, ㄴ’ 소리는 뒤이은 모음에 따라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ㄹ, ㅓ, ㅕ, ㅗ, ㅛ’ 앞에서의 ㄹ과 ㄴ은 없어지고 ‘ㅏ, ㅓ, ㅕ, ㅗ, ㅛ, ㅕ, ㅗ, ㅛ’ 앞의 ㄹ은 ㄴ 소리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 단어의 예를 볼까요. 한자어 ‘낙’과 ‘명’의 결합은 ‘낙명’으로 소리 내어 읽지 않고 ‘익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역시 본래의 한자음은 ‘녀’이지만 ‘녀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읽고 씁니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도 본래 한자음은 ‘료리’이지만 그렇게 읽고 쓰지 않고 ‘요리’로 읽고 씁니다. ㄹ 소리가 ㅛ 앞에서 없어진 것이죠. ‘낙원’도 본래의 한자음인 ‘락원’ 대신 ‘낙원’으로, ‘로동’도 ‘노동’으로, ‘래일’도 ‘내일’로 읽고 써야 합니다. 이것이 두음법칙입니다.

다음은 구개음화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개음화, 언어학에서는 palat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소리, 즉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인 ‘ㅈ, ㅊ’ 소리가 되거나 또 ‘ㄷ’ 소리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ㄷ’ 소리와 ‘ㅎ’ 소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 소리가 ‘ㅊ’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굳이’라는 단어는 ‘ㄷ’과 ‘ㅣ’가 만나서 ‘구디’로 소리가 나야 할 것 같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구지’로 읽게 됩니다. 같은 ‘굳다’가 뒤에 ‘은’이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와 함께 쓰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든’으로 소리 내어 읽게 됩니다. ‘밭’과 ‘이’의 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ㅌ’ 소리가 ‘이’와 결합하면서 ‘바치’로 읽게 되고요. ‘갈’과 ‘이’의 결합도 ‘가치’로 읽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또 앞서 ㄷ 소리와 ㅎ 소리가 결합할 경우 축약이 되어 ㅌ 소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ㅌ 소리는 구개음화 환경에서 ‘구치다, 다치다’처럼 구개음에 해당되는 ㅊ 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매개모음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매개모음은 자음과 자음이 이어질 환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매개모음이란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이어서 소리 날 때 자음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두 자음 사이에 끼워 넣는 모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먹다’의 ‘먹’과 연결어미 ‘면’이 결합하는 경우 ‘먹다’의 자음 ‘ㄱ’과 ‘면’의 자음 ‘ㅁ’이 연속해서 이어지

는 환경이 되겠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 사이에 ‘ㄱ’가 들어가면 ‘먹으면’으로 소리 내어 읽게 됩니다. 반면에 ‘가다’의 ‘가’와 ‘면’이 결합할 경우에는 모음과 자음이 연속해서 결합하기 때문에 ‘ㄱ’가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설명과 다르게 가면을 모음 충돌의 회피를 위해 ‘가다’와 ‘-으면’이 결합하면서 ‘-으-’가 탈락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어말 파열음의 불파음화 현상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말 파열음은 파열되지 않고, 즉 터지는 소리가 나지 않고 폐쇄된 상태, 즉 닫혀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밥, 국, 딴다’에서 어두 초성과 어말 종성이 같은 자음이지만 다르게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ㅂ, ㅌ, 읍’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어두 초성의 소리는 ‘ㅂ’와 같이 파열이 되지만 어말 종성의 ‘읍’은 같은 자음이지만 ‘읍’과 같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단, 이들 종성 자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어말 종성의 자음들이 파열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밥’ 뒤에 조사 ‘이’가 오는 경우에는 ‘바비’가 됩니다. 그리고 ‘국’ 뒤에 조사 ‘이’가 오는 경우에는 ‘구기’가 됩니다. 형용사나 동사 같은 용언의 활용 시에도 ‘좁아’가 아니라 ‘조바’, ‘눅아’가 아니라 ‘노가’처럼 어말 종성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 자리로 가서 파열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다음은 비음동화와 평파열음화입니다. 비음동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밥 먹어’에서 밥의 어말 종성의 ㅂ 소리는 ‘읍’과 같이 폐쇄음으로 실현이 되죠. ‘밥’에서는 비음이 아니지만 뒤에 ‘먹어’와 함께 소리가 날 때는 ‘밤 먹어’와 같이 ‘읍’ 소리가 ‘음’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읍’ 소리가 ‘음’과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동화라고 하는데요. 인접한 비음에 의해서 같은 비음으로 바뀐 현상이기 때문에 비음동화, 줄여서 비음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현상도 있는데요. ‘앞에, 뒤에’ 할 때 ‘앞’의 경우 그 받침은 ‘ㅍ’ 소리이지만 실제 발음은 ‘ㅂ’ 소리로 ‘압’과 같이 실현이 됩니다. 부엌도 마찬가지로 ‘부엌크’가 아니라 ‘부억’과 같이 평파열음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처럼 인접한 소리들로 인해서 비슷한 소리로 바뀌거나 또 비슷한 소리들로 대체되는 이런 다양한 음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중에서 음운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같은 조음 위치, 소리를 만드는 위치와 조음 방법, 소리를 만드는 방법인데도 그 안에서 세 가지의 음소를 구분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 뿔, 풀’의 경우를 보면 모두 같이 양 입술을 모아 ‘ㅂ, ㅃ, ㅍ’와 같이 입술을 모아내는 소리이고 파열음 ‘ㅍ’와 같이 터지는 소리라는 공통된 조음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소리에 따라 각각 뜻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예사소리로 낼 때는 불, 두 번

째 된소리로 낼 때는 머리에 나는 볼 그리고 세 번째 거센소리로 낼 때는 들판에 나 있는 풀과 같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평음, 경음, 격음의 세 가지 음소로 나누어 뜻을 구분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영어에서는 같은 양 입술소리이고 또 파열음인 p 소리의 p의 경우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내는 소리인 b 소리가 있습니다. 알파벳 b로 표시하는 소리인데요. 이들은 각각 무성음 p와 유성음 b라는 성질로 구별이 됩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같은 조음 위치, 같은 조음 방법인 소리의 경우 두 가지 음소로만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어는 더 복잡한 발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어는 어두에 여러 개의 자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두, 즉 단어의 첫 부분에 둘 이상의 자음이 함께 쓰이는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이 어두자음군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데요. 반면에 영어는 어두 자음군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strike’ 같은 경우에는 ‘str, str’ 이렇게 3개의 자음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단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스트라이크’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라이크’와 같이 각각의 자음들을 음절화해서 영어와 달리 5개의 음절로 소리 내게 됩니다. 다만 ‘꿀, 딸, 볼, 쌀 짬’과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음이 2개 온 것처럼 보이죠. ‘ㄱ과 ㄱ’, ‘ㄷ과 ㄷ’ 이렇게만 보면 자음이 2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표기상 유사할 뿐 둘 이상의 자음이 온 것, 즉 어두자음군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ㄱ, ㄷ, ㅌ, ㅍ, ㅊ, ㅌ, ㅍ, ㅊ’ 이런 ‘ㄱ, ㄷ, ㅌ, ㅍ, ㅊ’ 소리는 자음군이 아니라 각각 하나의 자음이며 된소리, 즉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표기상으로만 자음을 연속해서 쓴 것일 뿐 자음을 두 번 소리 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자음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다른 언어에 비해 단어 내의 운소, 특히 성조가 변별적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영어나 중국어와 달리 성조가 음운의 변별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설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설명입니다. 즉, 모든 한국어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표준어나 중부 방언, 서남 방언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이 맞지만 동남 방언이나 강원도 영동방언 같은 경우 성조 또는 고저의 악센트에 해당하는 음운의 변별을 사용합니다. 대신 표준어에서는 고저가 아니라 길이, 즉 장단, 길고 짧은 것으로 뜻을 구별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길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원칙이고요. 달리는 ‘말’의 경우는 짧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같은 소리지만 ‘말’과 ‘말:’로 구별해서 쓰는 특징을 갖는 것이 중부 방언이나 서남 방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장단에 의한 구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어의 방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동남 방언의 경우에는 성조 또는 고저 악센트를 사용해서 음운의 변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 방언에서 숫자 2를 뜻하는 ‘이’는 ‘이’ 그리고 알파벳 E에 해당하는 ‘이’는

‘이’. 이렇게 음소는 같지만 운소, 즉 거기에 얹혀 있는 높낮이를 다르게 씌으로써 뜻을 구별하게 됩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2022년, 정승철.
- 방언이야기, 태학사, 2007년, 국립국어원 편.
-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2015년, 최명옥.
- (쉽게 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3년, 홍종선 외.

3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2 -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학습 목표

- 방언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인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모음조화, 구개음화, 두음법칙, 매개모음 등 용어와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법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유형론적으로 교착어, agglutinative language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착어란 명사나 대명사 같은 체언이나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의 어간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해서 문법적인 기능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화-를 만나-았-다.’ 이런 식으로 ‘가’나 ‘를’, ‘-다’ 같은 조사나 어미가 앞의 체언이나 동사 등과 결합하면서 ‘철수가 영화를 만났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조사는 명사, 대명사 등이 결합하고 어미는 동사와 형용사가 오는 환경 뒤에 결합함으로써 더 다양한 기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너가, 너를, 너의, 너에게, 너랑’, 또 ‘만나기를, 만나고, 만나서, 만났니, 만나라, 만나자, 만났구나’처럼 다양한 환경과 기능 의미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굴절어인 영어도 비슷하게 ‘go’가 ‘goes’가 되는 것처럼 어미가 뒤에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래하다를 뜻하는 ‘sing-sang-sung’처럼 내적인 변화를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착어인 한국어와 영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중에서 중요하게 꼽히는 것으로 한국어의 어순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어는 영어나 중국어와 달리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상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서술어가 가장 뒤에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어순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체로 덜 중요한 수식어, 즉 꾸미는 말이 더 중요한 피수식어, 꾸밈 받는 말 앞에 온다는 것이죠. ‘새 책, 착한 마음’ 같이 순서상 수식어, 즉 꾸미는 말이 먼저 오고 피수식어, 즉 꾸밈 받는 말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한국어는 어순이 대체로 잘 지켜지지만 조사에 의해 문장 성분의 역할이 표시되어 있어서 주어나 목적어의 어순이 뒤바뀌거나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철수가 만났다.’처럼 주어인 ‘철수가’ 또 목적어인 ‘영화를’의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문장의 성립과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구어, 즉 입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높임법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높임 표현이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발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죽을 먹는다.’는 높임법이 잘못되어 비문, 즉 잘못된 문장이고 ‘할아버지께서 죽을 잡수신다.’가 바른 문장, 즉 정문입니다. 또한 ‘할아버지를 뵈고 궁금한 것을 할아버지께 여쭙보기로 했다.’에서처럼 ‘뵈다’나 ‘여쭙다’가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도 합니다. 듣는 이, 즉 청자와 말하는 이, 화자의 관계에 따라 단어의 꼴을 다양하게 바꾸기도 하는데요. 화자보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은 청자에게는 ‘그만 가라. 그만 가. 그만 가게.’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고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는 ‘가요. 가요. 가십시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높여 부르기 위해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를 뜻하는 말은 ‘아버지, 아버님, 부친’처럼 다른 단어를 써서 높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뜻하는 말로 ‘춘부장, 춘장, 춘부대인, 노대인, 부군, 어른, 존대인’ 같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이의 뜻하는 말도 ‘연세, 춘추’와 같은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2022년, 정승철.
- 방언이야기, 태학사, 2007년, 국립국어원 편.
-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2015년, 최명옥.
- (쉽게 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3년, 홍종선 외.

4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3 - 한국의 지리와 역사, 문화적 특징

학습 목표

- 한국어 방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어 방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의 방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도를 보면서 먼저 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지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지도에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즉 인접해 있는 섬들이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 오늘날 한국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 지도상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북아시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처럼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 일본 같은 인접한 나라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류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힘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전쟁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어의 방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과 연관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펼쳐졌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영화는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로 ‘황산벌’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부 내용은 각색된 면도 있고 또 역사적 사실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삼국시대 세 나라의 언어가 오늘날 각 지역의 사투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특성을 가졌을 것이란 상상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잠시 함께 동영상을 시청해보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반도를 포함하여 만주까지 통치하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기원전부터 600년대 중후반까지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붉게 표시되어 있는 나

라가 고구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백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신라입니다. 이 지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의 영토를 나타낸 것으로 백제는 오늘날 한반도의 서남지역, 충청과 호남 지역을 주로 포함하고 있고 신라는 동남 지역, 영남 지역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라가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여서 중부 지방도 신라의 영토로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한반도 북부와 그 북쪽 지역은 고구려가 지배했던 영토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 방언의 음운적, 어휘적 특징들이 동부와 서부로 어느 정도 나뉘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당시 백제와 신라로 나뉘어 있었던 것과 유사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산맥의 발달과 같은 지리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세 나라 중에서 신라가 다른 두 나라를 통일하면서 통일 신라가 세워진 이후 단일한 지배 세력의 통치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 후고구려, 후백제 등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고구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한 고려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서 단일 세력의 지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성립부터 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의 국권이 상실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한반도는 그 안에서 발전한 단일 지배 세력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조선이 국호를 바꾼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고 무력에 의한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를 거부하고 오늘날 중국에 위치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상당수가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길림성, 중국식으로는 지린성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상당수는 그들의 선조들이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를 택하면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을 떠나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긴 조선인들은 그곳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떠난 이들이 많았기에 항일 독립군에 가담하기도 했고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등을 통해 일본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의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일제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군을 공격했고 무기나 군대의 조직, 보급 등에서 열세였던 독립군들은 연해주로 넘어갔다가 러시아로부터 자유시 참변을 당하기도 하는 등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제 군인들의 토벌을 피해 연해주로 넘어갔던 독립군과 이들을 따라 이주한 조선인들 중 상당수는 이후 소련의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의 여러 나라들로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이 지역에

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기도 했는데요. 고통 속에서 생존한 이들은 고려인, 까레이로 불리면서 오늘날까지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인들 중 다른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근대화에 앞서 있고 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던 일본으로 건너가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에 조선인들이 대규모 집단 이주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재일한인, 자이니치, 조선족, 고려인 등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수업의 뒷부분 마지막 주차에는 이들의 현재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볼 것입니다.

한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제가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한반도는 독립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이것도 잠시, 오늘날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진입하고 남한 지역은 미군이 진입하면서 민족 갈등과 분단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 6·25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 한 형제가 남과 북으로 떨어져 겪게 되는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실감나게 묘사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잠시 이 영화의 일부분을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냉전 세력이 진군하게 되고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겪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단절된 분단의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되었다가 1998년 한 기업인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휴전선의 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통치 세력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표준어도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남한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문화어로 부르고 있으며 남한은 수도 서울의 말을 중심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수도 평양의 말을 중심으로 각각 표준어와 문화어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문화어는 지역적으로 서북 방언에 해당하는 지역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언학에서 한국의 방언을 방언 구획에 따라 나눌 때 크게 6개의 대방언권으로 나눕니다. 먼저 한반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중부 그리고 서북, 서쪽과 북쪽에 해당되는 서북과 또 동북으로 나누어서 중부 방언권, 서북 방언권 동북 방언권을 나누고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남 방언권과 동남 방언권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 방언권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서 한반도의 지리에 대해

알아두면 한국어 방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방언 구획상 서북, 동북 그리고 중부 방언권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평안남도에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평안북도까지 합해서 이를 평안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평안도 지역이 방언 구획상 서북 방언권에 해당합니다. 서북 방언권에서 동쪽으로 가면 함경남도와 함경북도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들 역시 합쳐서 함경도로 부르기도 하고 동북 방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강도나 양강도 같은 행정구역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북한에서 새롭게 책정한 행정구역인데 한국의 방언학에서는 이런 새로 생긴 행정구역은 굳이 구분하지 않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북 방언권과 동북 방언권 아래 남쪽에는 황해북도, 황해남도와 강원도가 위치해 있는데요. 황해도와 강원도는 중부 방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대한민국의 방언 구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학에 서는 남한의 경기도와 서울, 강원도 일부와 충청남북도를 중부 방언권으로 설명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부 방언인 서울 지역의 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세웠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충청방언은 표준어와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른 방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부 방언권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서쪽에는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서남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광주나 전주 같은 대도시가 이 방언권에 속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남동쪽에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동남 방언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등 대도시가 이 동남 방언권에 속하고요. 이 지역의 방언은 경상 방언이나 영남 방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비해서 서남 방언은 전라 방언, 호남 방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떨어진 섬으로 제주도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방언은 제주 방언으로 부릅니다. 제주는 내륙과 고립된 섬인 만큼 의사소통 측면에서 한국의 다른 어떤 방언보다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지역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역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리적·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지역에 따른 정치적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반도의 남쪽을 대략적으로 반으로 갈라서 좌측은 상징색이 푸른색인 정당이, 우측은 상징색이 붉은색인 정당이 더 많이 득표한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정치적 특징을 지역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러한 지역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특성은 사회

문화적 특징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같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 간에는 언어적, 사회문화적 공통성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2022년, 정승철.
- 방언이야기, 태학사, 2007년, 국립국어원 편.
- (쉽게 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3년, 홍종선 외.

5차시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방언의 음운적 특징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어의 표준어와 방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음, 모음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어의 억양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세대별 음운 체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한국어의 음운 체계 중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 보죠.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말소리가 아닌 소리들도 있겠죠. 그런 소리를 우리는 음이라고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소리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운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소리인데요. 반면에 음성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물리적인 소리를 뜻합니다. 음운이란 음소와 운소를 합한 말인데요. 음소와 운소는 각각 음소는 자음과 모음, 반모음을, 운소는 고저나 억양, 장단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음운의 예를 음성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는 실제 소리는 ‘구거’로 소리가 납니다. 이때 각각의 소리들을 구분해서 분리시켜 발음을 해보면 ‘ㄱ-k, ㅏ, ㄱ-g, ㅣ’ 이렇게 소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ㄱ-k’의 ‘ㄱ’ 소리와 ‘ㄱ-g’의 ‘ㄱ’ 소리는 음성적으로는 다른 소리입니다. ‘ㄱ’ 소리는 ‘k’ 소리에 가깝고 ‘그’ 소리는 ‘g’ 소리에 가까운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머릿속에는 ‘구거’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각각의 ‘ㄱ’ 소리가 동일한 ‘ㄱ’에 해당되는 소리로 인식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소리가 다르더라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소리는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소리를 음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물리적인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의 음운 중에서 음소, 그중에서도 자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자음이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떤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체계를 잘 보시고 숙지하셔야 다음 이어지는 수업에서 나오는 방언의 다양한 음운 현상들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표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는 한국어의 자음의 체계에 해당되는 표인데요. 먼저 상단에 있는 용어들은 조음 위치, 즉 해당되는 자음의 소리가 실현되는 조음 기관 내에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양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 입술, 즉 양순이라고 하는 조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치조음 또는 치경음의 치조나 치경은 이와 이에 닿아 있는 잇몸, 또는 그 닿아 있는 잇몸의 딱딱한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경구개음 또는 치경 경구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위치가 이와 잇몸이 닿은 그 위치에 혀를 대었을 때 이와 잇몸이 닿은 부분을 치조나 치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보다 좀 더 혀를 뒤로 보내면 더 딱딱한 윗잇몸이 만져지실 겁니다. 이렇게 혀를 뒤로 보내면서 딱딱한 윗잇몸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구개 또는 치경 경구개라고 부르고 그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경구개음 또는 치경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줄여서 경구개음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딱딱한 윗잇몸 쪽에 혀를 댔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혀의 위치를 좀 더 목구멍 쪽으로 뒤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혀를 윗잇몸에 댄 상태에서 쪽 뒤로 보내시면 부드러운 잇몸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부드러운 윗잇몸 부분을 연구개라고 하고 연구개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연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의 조음 위치 중에 마지막입니다. 부드러운 입천장보다 더 뒤로 가면 이제 혀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조음 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후두음 또는 성문음은 바로 이 후두, 또 성문, 즉 성대의 그 입구, 소리가 드나드는 입구 쪽에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자음에서는 총 5가지의 조음 위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음 방법 쪽으로 가볼까요. 좌측에 보시면 먼저 가장 윗부분에 파열음 또는 폐쇄음이라고 되어 있는 조음 방법이 있습니다. 파열음은 닫았다 터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ㅍ, ㅌ, ㅋ’처럼 닫는 과정과 터지는 과정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조음 방법을 말합니다. 이 파열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음과 경음, 격음, 다른 말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 파열음 아래쪽에 마찰음이라고 되어 있는 조음 방법이 있습니다. 마찰음은 ‘ㅅ, ㅎ’처럼 마찰을 일으켜서 귀에 잡음처럼 들리는 소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ㅈ’ 소리처럼 이런 소리는 닫혔다 열리면서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리를 말하고 이때 해당되는 조음 방법을 파찰, 파찰의 과정을 통해 나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조음 과정에서의 방해에 의해 일어나는 소리라고 해서 장애음이라고 하고요.

파찰음 아래에 있는 소리들은 비장애음, 그중에서도 먼저 비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니다. 비음은 코에서 기류가 빠져나오면서 코의 기류에 의해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응, 음, 은’처럼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코에 대보시면 그 해당되는 소리가 날 때 손가락에 코에 나오는 바람이 닿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소리를 비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음 또는 설측음이라고 하는 ‘을’ 또는 ‘를’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이 유음은 기류가 ‘을’ 이런 식으로 구강 내에서 입 안에서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물이 흐르듯 빠져나가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혀의 양 옆, ‘을’ 할 때 혀의 양 옆 쪽으로 기류가 빠져나가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류가 흐른다는 뜻으로써 유음이라고 하거나 혀의 양 옆으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설측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비음과 유음은 비장애음으로서 공명, 즉 울림과 함께 나는 소리라고 해서 공명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조음 위치상 가장 앞쪽에 있는 양 입술에 조음 위치를 두고 그 조음 위치 내에서 닫혔다 터지는 파열의 방법으로 소리가 나는 자음이 있습니다. 바로 ‘ㅂ, ㅃ, ㅍ’ 같은 양순 파열음입니다. 이 양순 파열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사소리, 즉 평음일 경우 ‘ㅂ’ 소리에 해당되는 ‘ㅂ’로 소리가 납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즉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같다 하더라도 조음 방법을 더 세분화해서 3개의 음소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양순음 다음 조금 더 조음 위치를 뒤로 이동을 시키면 바로 이와 잇몸이 닿는 부분, 치조 또는 치경의 위치가 되고 그 위치에서 나는 파열음을 치조파열음 또는 치경파열음이라고 하는데요. ‘ㄷ, ㄸ, ㅌ’ 이런 소리들이 치조파열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음 위치를 뒤로 해서 연구개 위치에서 나는 파열음을 연구개 파열음이라고 하고 ‘ㄱ, ㄲ, ㅋ’ 같은 소리들이 바로 연구개 파열음에 해당이 됩니다. ‘ㅂ’ 소리, ‘ㄷ’ 소리, ‘ㄱ’ 소리 이 3개의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장애음 중 가장 대표적인 파열음인 양순 파열음, 치조 파열음 또는 치경 파열음, 연구개 파열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찰음은 두 가지의 조음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먼저 치조 마찰음입니다. ‘ㅅ, ㅆ’와 같은 소리인데요. 한국어의 ‘ㅅ’ 소리에 해당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마찰음은 치조 마찰음과 함께 후두 또는 성문에서 발생하는 마찰음이 있는데요. 바로 ‘ㅎ’ 소리입니다. ‘ㅎ’와 같은 자음 ‘ㅎ’에 해당되는 소리를 후두 마찰음 또는 성문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은 하나의 조음 위치에서만 실현이 됩니다, 한국어의 자음의 경우. 지금 경구개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실현되는 파찰음이 있고 해당되는 소리는 ‘ㅈ’ 소리입니다. ‘ㅈ, ㅉ, ㅊ’에 해당되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의 자음 중에서 장애음에 해당되는 소리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공명음 중에서 비음에 해당되는 소리는 양순 비음인 ‘ㅁ’, 치조 비음인 ‘ㄴ’, 연구개 비음인 “이 3가지의 조음 위치에서 실현되는 비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음의 경우에는 치조 위치에서 실현되는 치조 유음 또는 치조 설측음에 해당되는 ‘ㄹ’ 또는 ‘을’에 해당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방언의 음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구개음이 아닌 소리가 구개음으로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앞서 살펴보았던 비음 동화 같은 경우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음 체계 안에서 음운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모음 체계입니다. 한국어의 모음 체계는 이렇게 총 10개의 모음을 표준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음은 혀의 위치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먼저 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전설 모음과 혀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후설 모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혀의 높낮이, 즉 고모음과 중모음, 저모음처럼 혀가 높은 위치에서 나는 모음과 혀가 낮은 위치에서 나는 모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혀의 앞쪽인 전설 위치에서 혀가 높은 위치인 고모음으로 실현되는 모음은 ‘ㅣ’ 모음이 있습니다. ‘ㅣ’ 모음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ㅣ’라고 소리를 내면 할 때 혀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 아주 가볍게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위치가 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조음 기관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가 ‘ㅞ’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ㅣ’는 더 높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혀의 높낮이를 느끼시기 어렵다면 턱의 높낮이로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ㅣ, ㅞ, ㅞ’와 같이 턱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서 실현되는 모음을 고모음, 턱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실현되는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순과 원순은 입술의 모양을 둥그렇게 모으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 모으지 않는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ㅣ’ 같은 경우는 입술의 모양을 둥그렇게 모으지 않죠. 반면 원순 모음의 경우는 ‘ㅜ, ㅛ, ㅠ, ㅟ’처럼 입술을 둥그렇게 말아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혀의 앞부분인 전설 위치에서 나는 고, 중, 모음은 ‘ㅣ, ㅞ, ㅞ’의 평순 모음과 ‘ㅜ, ㅛ’의 원순 모음으로 나뉘는데요. 전설 원순 고모음과 전설 원순 중모음에 해당되는 ‘ㅜ, ㅛ’는 표준 발음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 평순 중모음과 저모음에 해당되는 ‘ㅞ’와 ‘ㅞ’는 아나운서 발음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잘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후설 모음으로 가볼까요? 혀의 뒤쪽 위치에서 나는 모음인데요. 먼저 후설 평순에 해당되는 고, 중, 저모음은 ‘ㅡ, ㅓ, ㅗ’ 모음이 있습니다. “ 할 때 턱의 위치가 높고 혀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ㅓ, ㅗ’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턱의 위치는 내려가고 혀의 위치도 함께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둥글게 말아서 ‘ㄴ, ㄹ’로 소리 내는 경우에도 후설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ㄴ, ㄹ’를 따라 해보시면 “ 할 때 혀가 이렇게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총 10개의 모음을 한국어 표준 발음법에서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ㄱ’과 ‘ㄴ’은 잘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ㄱ’나 ‘ㄴ’은 역시 잘 쓰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현실 발음의 모음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음의 분류 체계 중에서 평음과 경음 그리고 격음 세 가지의 소리로 구분해서 같은 조음 위치, 같은 조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음 방법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별개의 음소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과 불과 풀.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고 뜻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조음 위치, 모든 조음 방법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찰음의 경우 ㅅ, ㅆ는 두 가지로만 구분하기도 하고 ㅎ 소리는 아예 그런 구분이 없기도 하고요. 또 공명음에 해당되는 소리들은 조음 방법에 따른 구분을 더 이상 나누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음의 분류 체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음되는지와 그리고 각 지역의 방언은 발음의 체계가 자음이나 모음의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중에서도 모음의 체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모음은 표준발음법상 원칙에서 이렇게 총 10개의 모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모음 체계를 보면 10개의 모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 방언, 즉 경상방언에 해당되는 모음의 체계는 이렇게 6개의 모음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설 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상 전설 모음은 총 5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남 방언에서는 ‘ㄱ’과 ‘ㄴ’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설 원순 고모음인 ‘ㄱ’과 전설 원순 저모음인 ‘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서는 전설 모음은 ‘ㅣ’와 ‘ㅓ’ 두 가지로만 실현이 됩니다. 이것은 표준 발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 발음의 표준 발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특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후설 모음은 표준 발음법상의 5개의 모음 체계에서 ‘ㅗ’라는 모음이 빠져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동남방언의 후설 모음은 ‘ㅗ’가 쓰일 자리를 ‘ㅜ’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거나 ‘ㅡ’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 할 때 ‘어디’를 ‘으데’, ‘ㅗ’가 쓰여야 될 자리를 ‘ㅡ’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남 방언의 모음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ㅗ’라는 모음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모음 체계상으로 봤을 때도 표준 발음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칙의 모음에 비해서 훨씬 간략한 체계를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 발음에서도 전설 모음의 경우 ‘꺄’나 ‘꺏’ 같은 모음은 실제 현실적인 발음이 아니라고 보고 현실 발음에서 이들은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꺄’와 ‘꺏’의 경우에도 하나의 모음처럼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전설 모음은 현실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가지만 인정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반면에 후설 모음은 표준 발음법상 원칙과 현실적 허용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없는데요. 동남 방언의 경우 ‘ㅓ’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서남 방언입니다. 서남 방언은 흥미롭게도 표준 발음법상의 신 모음 체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설 모음인 ‘꺄’와 ‘꺏’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방언 화자에 따라서 ‘꺄’와 ‘꺏’을 구분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서남 방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되지는 않지만 구분하는 경우도 자주 관찰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괄호를 하고 ‘꺄’ 모음이 체계상에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 방언, 경상방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ㅓ’라는 모음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ㅓ’가 쓰여야 될 자리를 ‘ㅡ’로 대체하거나 ‘ㅗ’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서북 방언, 즉 오늘날 북한의 문화어에 해당되는 근간이 되는 방언입니다. 서북 방언은 연령, 즉 세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광복 이후에 출생된 화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음 체계가 동남 방언보다도 더 간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ㅡ’모음이 잘 쓰이지 않고 ‘ㅓ’모음이 거의 쓰이지 않아서 후설모음의 경우 3개의 모음만 거의 관찰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북 방언에서는 남한의 표준어에 해당되는 ‘어머니’를 ‘오마니’라고 부릅니다. ‘오마니’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는 ‘아바이’ 또는 ‘아바디’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ㅓ’와 ‘ㅗ’ 또 ‘ㅓ’와 ‘ㅗ’의 대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서북 방언에서 ‘ㅓ’라는 모음이 잘 쓰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ㅗ’라는 모음은 방언형에서 그대로 관찰이 되지만 ‘버’에서 ‘ㅓ’ 모음 대신 ‘ㅗ’ 모음이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 음운체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제주 방언입니다. 제주 방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아래아 ‘ㅓ’가 아직까지 쓰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다른 지역 방언에서는 ‘ㅓ’가 관찰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표준어나 다른 지역의 방언들에서는 이 아래아 ‘ㅓ’가 쓰이지 않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유일하게 ‘ㅓ’가 관찰이 됩니다. 이 ‘ㅓ’는 역사적으로 원래 존재했던 모음인데요. 중부 방언이나 동남, 서남 방언 등 다른 모든 지역

에서는 이 아래아가 소실, 즉 사라지면서 더 이상 모음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반면 제주 방언에서는 아직까지 모음의 한 음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2022년, 정승철.
- 방언이야기, 태학사, 2007년, 국립국어원 편.
-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2015년, 구분관 외.
- (쉽게 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3년, 홍종선 외.

6차시 한국어 방언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 - 몇 가지 예시

학습 목표

- 한국어의 품사와 조사, 어미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어 방언의 어휘적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에 대해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 특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문법의 단위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라는 것은 최소의 자립 형식을 말합니다. 형태론적으로 다른 요소의 도움이 없이 문장에서 홀로 쓰이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에서 ‘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를 각각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어라고 하는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도 있습니다. 형태소라고 하는 단위죠. 이 중에서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요소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즉 홀로 쓰이는 단위이지만 한국어에서 조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립 형식이 아니지만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단어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의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체계화한 한국어의 품사 분류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언에 해당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상태 및 사건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 책, 손’ 같은 단어들을 말합니다. 대명사는 이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로 ‘나, 너, 그’나 ‘그녀’, ‘우리’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수사는 어떤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데요. ‘하나 둘, 일, 이, 첫째 둘째’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관형사나 부사인데요. 이런 관형사나 부사어는 수식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주는 말인데요. 새 책의 ‘새’, 흰 옷의 ‘흰’,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같은 단어들을 말합니다.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부사라고 하는데요. “빨리 가라”의 ‘빨리’, “천천히 와라”의 ‘천천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본능적인 놀람, 화자의 놀라는 것이 또 느낌, 부름, 응답 등과 함께 하나의

단어 부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야, 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 한국어의 경우 홀로 자립적으로 쓰이는 것만 단어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조사도 단어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것을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철수가’의 ‘가’ ‘영희를’의 ‘를’, ‘나는’의 ‘는’, 또 ‘집에서’의 ‘에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언에 해당되는 동사와 형용사가 또 있는데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가다, 먹다’, 또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좋다’나 ‘곱다’에 해당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서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중에 유형론적 특징으로 교착어라는 분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교착어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조사와 어미라고 하는 것이 문법 단위로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격 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접속 조사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격조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조사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즉 주어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인 주격 조사와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서술격 조사 등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이/가’나 ‘께서, 에서, 서’처럼 주어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가 바로 주격 조사입니다. 이들 조사들은 방언에서 각각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음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는 ‘이다’의 ‘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목적격 조사에는 ‘을/를’, 또 보격 조사는 주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데요. ‘이/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등 총 7개의 조사가 격조사의 하위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선어말 어미 뒤에 주로 쓰여서 어떤 단어의 끝을 맺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이 어말어미는 문법적인 의미, 즉 기능에 따라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는데요. 종결어미는 문장 유형 5가지의 기준과 그대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나뉘면서 평서형 어미인 ‘-다. -ㅂ니다. -습니다.’ 의문형 어미인 ‘-느냐, -니, -는가’ 명령형 어미인 ‘-어라, -거라, -너라’ 청유형 어미인 ‘~하자, ~하세’의 ‘-자-, -세, -ㅂ시다’ 감탄형 어미인 ‘-구나, -군, -구려’ 등으로 나뉩니다.

연결 어미는 원래 각각의 문장이었던 것을 이어주는 어미를 말하는데요. 원래 두 문장이었던 것을 대등한 관계로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인 ‘-고’와 ‘-며’, 또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에 려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인 ‘-어, -자, -면, -니까’ 보조적 연결어미로서 앞에 있는 본용언과 뒤에 있는 보조 용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아, -게, -지, -고’ 같은 보조적 연결어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래 동사나 형용사인 것을 명사나 관형사, 부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도 있는

데요.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음, -기’,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은, -는, -을, -던’, 부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도록, -듯이’ 등의 전성 어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한국어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를 알아보기 쉬운 방식 중에 방언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한국어의 어문 규범과 사전의 편찬, 또 지역 방언 보존 등 한국어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어 종합 정보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중에서 한국어 ‘가위’가 지역별로 어떤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 포털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꼭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지도 그림에서 보시면 한국어 ‘가위’는 여러 지역에서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표준어 ‘가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강원도 일부,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 지도상에서 보면 표준어 가위가 아닌 형태가 더 넓은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충만 봐도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은 가위 대신 방언형 ‘가세’를 쓰는 지역들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 ‘가세’만 쓰이지만 다른 어떤 지역은 표준어 가위와 가세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음은 유사하지만 아래아가 쓰인 ‘ㄱ세’ 형을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제주방언권이죠. 또 행정구역상 경상도 지역인 동남 방언권을 보면 ‘가시개’ 형이 가장 넓은 지역에 쓰이고 있고 ‘가씨개, 가시개, 까시개’ 이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벼’가 지역별로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벼’의 방언 지도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고 벼농사가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벼’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휘로 인식되고 있죠. 지도에 나타나 있는 양상을 보면 중부 지역에서는 ‘벼’로 그대로 쓰이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베’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부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면 벼보다 월등히 많이 쓰이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나락’입니다. 동서를 구분하지 않고 중부 이남 지역 전반에 걸쳐서 ‘나락’ 형이 쓰이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나락이 주로 쓰이지만 ‘베’가 같이 쓰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제주 지역은 특이하게도 ‘나락’이 아니라 ‘나룩, 나룩’ 같은 특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만 쓰이는 것도 아니어서 ‘나룩, 나룩’과 함께 ‘벼, 베’ 등이 함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벼’를 그냥 ‘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쌀’은 원래 벼에서 껍질을 벗겨낸 것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쌀’과 ‘벼’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언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한국어 ‘마을’입니다. 표준어 ‘마을’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고루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붉은 점으로 표시된 것이 한반도 남부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마을 대신 ‘말’, 또는 ‘큰말’ 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을 제외한 이남 지역은 ‘마을’과 ‘동네’, 즉 ‘ㅏㅓ’의 ‘동네’ 그리고 ‘ㅏㅓ’의 ‘동네’ 같은 형태가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상 지역의 경우를 보면 ‘마실’이라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마을’의 옛말 형태가 ‘ㅁ술’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옛말의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은 제주 지역에 ‘ㅁ술, ㅁ실, ㅁ을’ 이런 형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달걀’의 방언 지도입니다. ‘달걀’은 ‘계란’이라는 한자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고유어인데요.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죠. 달걀은 파란 사각형으로 표시된 ‘계란’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 또 충청 지역에서 주로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달걀’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형태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주로 보이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달기알, 달걀’ 같은 형태가 관찰되기도 하고 ‘닥알’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경상 지역과 전라 지역,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이나 ‘다알걀, 달가알, 달구알’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닥알’은 충청 지역과 한참 떨어져 있는 남도 지역, 한반도의 끝자락 지역에서 주로 관찰이 되는데요. 이처럼 지역적 연관성이 없는 지역에서 같은 형태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서는 ‘ㄷ세기’ 형이 관찰이 되는데요. ‘닭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달걀’이 ‘닭이 낳은 알’이니까 이러한 표현이 왜 쓰인 것인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상 한국어의 개별 어휘가 지역에 따라 어떤 다른 형태로 쓰이는지를 다양한 어휘의 예시를 통해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2022년, 정승철.
- 방언이야기, 태학사, 2007년, 국립국어원 편.
- 한국어의 문법 총론 1, 집문당, 2015년, 구본관 외.
- (쉽게 읽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3년, 홍종선 외.

Lecture

1차시 언어와 방언: 방언(方言)이란 무엇인가?

Hello! This time we will be looking at Korean dialects. To pique your interest in Korean dialects, we will watch some videos from Korean movies, where dialogues are mainly in Korean dialects. Did you notice the Korean used in the video? “대통령님 보시소. 우리 마을에는 길이 읍니다.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In this conversation, expressions such as ‘보시소, 읍니다, and 주시소’ are probably unfamiliar even to those who have learned Korean. Also, the first expression in the video, ‘first place in a math contest’, is not different from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but the accent is very different. Koreans often refer to this Korean as ‘sat’uri (dialect)’. Academically, sat’uri is called a ‘pangŏn (dialect)’ or a regional language. We will study sat’uri, pangŏn from now on.

In order to study Korean pangŏn and sat’uri, you must first know what Korean is. Korean is a type of language. Then what is language? Language is the spoken and written words that express one's thoughts and feelings or conveys them to others. Such as in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French, Spanish, or German, we can actually experience a language in the form of actual language or writing in each country. What you want to learn through this class is Korean.

The Korean dictionary defines Korean as follows. A language spoken by Koreans.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it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in terms of form and belongs to the Altaic language family typologically. It is us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in islan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Cheju Island. The word order is subject, object or complement, and predicate. Modifiers are placed in front of the word being modified. According to the Korean dictionary's definition, Korean is the language spoken primarily by Koreans. Linguistically, a component with a grammatical meaning behind a

certain word is expressed by affixing, that is, attaching. For example, in the sentence, '저는 선생님입니다.' The fact that with the grammatical meaning of '는' is attached to the meaning part '저' is a characteristic of Korean. It is also known typologically and historically, to belong to the Altaic language family. It is known that Korean, Japanese, Mongolian, Manchu, and Turkish belong to this family of Altaic languages. In addition, word order is in the order of subject, object, and predicate. There is a big difference from English or Chinese, which are in the order of subject, predicate, and object. On the other hand, modifiers are placed in front of the word being modified. It refers to things that appear in the same order as '새 책' and '착한 마음'.

The dictionary also defines where the Korean language is mainly spoken. 'It is us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on islan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Cheju Island.' By the way, is the Korean language used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on Cheju Island and other islands all made up of the same words and sounds? As you saw in the video, it is not. A pangŏn, or sat'uri, is a system of speech that is used in many regions in one language. Academically, pangŏn include a system of speech that is divided not only by region but also by class. The concept of pangŏn, which is well known to the general public, is sat'uri, that is, a language spoken in a particular area. As mentioned in the dictionary, various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Seoul, Kyŏnggi-do, Kangwŏn-do, Ch'ungch'ŏng-do, Kyŏngsang-do, Chŏlla-do, Cheju-do. We can say that the words used in places corresponding to the geographica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pangŏn of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is a combination of pangŏn and sat'uri. A pangŏn is something that belongs to a language even though it differs in phonetics, i.e., the sounds of speech, vocabulary, words, grammar, and structure of words or sentences. For example, among the dialects of Chinese, Cantonese has differences in phonetics, vocabulary, and grammar compared to the standard Chinese languages, Pŭtŏnghuà, but they belong to one language, that is, Chinese. The standard language and Cheju pangŏn, belong to the same language, Korean.

Sat'uri is an expression that is mainly used when narrowly defining the concept of pangŏn (dialect) as a language that is not a standard language used in a certain region. Looking at the definition alone, the standard language and sat'uri seem to be opposite to each other, but even as the standard language in Korean is actually made based on one of local dialects. The standard language is, after all, based on one regional pangŏn (dialect), called the Central dialect. Some Korean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sat'uri as a word that needs to be corrected. However, since a standard language is not a language that is superior to a dialect, it is just a type of dialect, so the perception that something is superior to another is wrong. It would be appropriate to view standard language as a language chosen arbitrarily for efficient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a branch of linguistics that studies pangŏn (dialects) is called dialectology. Dialectology is a field of linguistics that is widely studied in many countries in Places such as Europ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will be frequently mentioned in this class. Let's review the learning objectives of this course through the terms and concepts mentioned above. Through this class, you will learn about various words belonging to the Korean language and dialects of the Korean language.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reality of various Korean dialects. Due to the nature of the clas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ialects of Korean based on academic concepts and systems.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ialects and social dialects of the Korean language defined in dialectology, the class content is structured so that you can feel for yourself what the importance of dialect is in communication. And in the second half, we will learn about Korean words that are widely used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alk about in this class is the aspect of various Korean languages. Through this,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various methodologies and achievements of Korean dialect research.

Here's a summary of what we're going to study together over the next 10 weeks. First, we will study th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as well as the key terms and concepts of Korean dialects and dialectology. In addition, we

will briefly study various background knowledge such as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that we need to know to understand Korean dialects. What are regional dialects and social dialects, and how these concepts are distinguished in Korean. Through an overview of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dia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vocabulary, phonology, and grammar are examined. In later lessons, we will look at the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lexical characteristics of each dialect, as well as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ges, generations, and classes.

As mentioned earlier, in order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dialects of the Korean language defined in dialect studies, we will also study the main concepts and terms of Korean dialect studies. Professor Woobong Shin will explain this part to you in detail. You will learn about the dialect divisions of the Korean language, that is, the geographic distinctions of which dialects are spoken in which regions. We will also study dialect research, which is essential for collecting and organizing dialect data. In addition, we will examine how dialects are distinguished through the concept of dialect differentiation. We also want to look at dialect-related linguistic phenomena that occur at the contact and boundary between dialects. Looking at ‘individual dialectology’ spoken in dialectology, we will briefly look at how a dialect forms a language system and how academic research to analyze it is being conducted. The regional distribution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dialect appear is called the ‘dialect distribution’. The division of districts based on this dialect distribution is called ‘dialect division’. If you classify Korean dialects according to this dialect division, it can be divided into the Central, Northeast and Northwest, Southeast and Southwest, and Cheju regions. And we will have time to study the phonology, grammar, and lexi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divided in this way.

On the other hand, when you hear ‘pangŏn (dialect)’, you often think only of regional dialects. Pangŏn, as defined by dialectology, is not limited to regional dialects. It is not geographical factors, but social groups, that is, social factors such as social class, age, gender, religion, race, etc., which differentiate speech, which is called a social dialect. Social dialect is often used as opposed to regional dialect. Social dialect is closely related to sociolinguistics

and sociolinguistic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use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social groups. Language variations and language differentiation are often the result of differences in social background. So, sociolinguistics studies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such as class, age, gender, race, and religion on language differentiation. Among the major achievements of sociolinguists, for example, such as class-specific language differences in classed societies such as India and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blacks and whites in American society. Research on social dialects shaped by class or racial differences is taking place nowadays. What if the local language is very different, making communication difficult? Social chaos and inefficiency problems will arise. So, some countries create a standard language, and use one language and writing as a policy. We also want to study language norms, which are a collection of rule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 language and the dialect. Professor Dajeong Son will explain these contents to you in detail. The reason why you need to understand and study regional dialects and social dialects is to communicate well. Professor Son Da-jung will teach you in a very fun way about which dialects are used in communication situations.

Earlier, we looked at the dictionary definition that Korean is us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in islan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Cheju Island. In recent years, as Korea and the Korean language have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Korean is now being used all over the worl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inal part of this class, we will also learn about Korean in the world. Among them, I would like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of the regions where Koreans have migrated to other countries on a large scale and are trying to preserve their identity as Koreans. Among them, people living in groups in Japan, China, and various countri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re still using Korean and the local language. We will briefly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heir language.

2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1

–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A dialect is a system of speech differentiated by region or social class in a language. It also means a language that is not a standard language used only in a certain region. In this sense, many people use the word *sat'uri* (dialect). Dialectology is a branch of linguistics that studies dialects. In this class, to systematically study dialects, The dialect of the Korean language is explained based on terms, concepts, and systems of dialect stud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dialect phonology, grammar, and lexicon, which are sub-fields of dialect stud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m well, it is necessary to study basic knowledge of Korean phonology, grammar, and vocabulary. Only then can you be able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ialect. In this session, we will briefly review the unique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lex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ompared to other languages.

First, among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we will look at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Here, typology means language typology and refers to a methodology of linguistics. In linguistics, typology simply refers to the study of examining various languages in the world and classifying them into types. Furthermore, typology does not end with simple investigation and classification, but generalizes it and refers to the field of exploring the universal nature of human language.

First of all,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is the phenomenon of vowel harmony. Vowel harmony refers to a linguistic phenomenon in which, in words of two or more syllables, the following vowel sounds close to or identical to it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receding vowel. Vowels such as ‘ㅏ, ㅑ’ are called positive vowels. Positive vowels of syllables appear after positive vowels such as ‘ㅏ, ㅑ’. Vowel harmony is a phenomenon in which vowel sounds such as ‘ㅓ, ㅗ’ appear together with the same vowel at the back. For example, in the case of ‘깍아’ and ‘좁아’ in ‘사과를 깍아, 길이 좁아’ The same vowels are ‘ㅏ, ㅑ’ and the

same positive vowels are followed by ‘ㄴ, ㄷ’ Also, in the case of ‘숨어, 굽어’ the same negative vowels ‘ㅏ, ㅑ’ is connected. Along with these examples, you can easily observe this phenomenon of vowel harmony in Korean onomatopoeia or mimetic words. For example, examples such as ‘반짝반짝, 번쩍 번쩍’ also reflect the vowel harmony phenomenon. You will be able to see that vowels such as ‘ㅏㅏㅏㅏ, ㅑㅑㅑㅑ’ are connected in succession before and after. In addition, things such as ‘알록달록, 얼룩덜룩’, ‘줄줄’ in ‘물이 줄줄 흐른다’, ‘줄줄’ in ‘줄줄 흐른다’ also reflect the phenomenon of vowel harmony.

Next, there is a feature called ‘the initial law (tuǔmböpch’ik)’. The initial law refers to the fact that some sounds are reluctant to be pronounced at the beginning of a word, so they do not appear or are changed to other sounds. The sounds ‘ㄹ, ㄴ’ that come at the beginning, that is, at the beginning of a word, are constrained according to the vowel that follows. For example, ㄹ and ㄴ in front of ‘ㅣ, ㅏ, ㅑ, ㅓ, and ㅕ’ disappear. ㄹ is changed to ㄴ before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nd ㅡ’. Let’s look at examples. The combination of Sino-Korean word, ‘닉’ and ‘명’ is read as ‘익명’ rather than as ‘닉명’. Also, the original Sino-Korean is ‘녀’, but it is read and written as ‘여성’ rather than ‘녀성’. The original sound Sino-Korean word is ‘료리’, but it is read and written as ‘요리’. The sound of ㄹ disappears before ㅓ. ‘낙원’ should also be read and written as ‘낙원’ instead of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 ‘락원’, ‘로동’ as ‘노동’, and ‘래일’ as ‘내일’. This is **두음법칙**.

Next, I will explain palatalization. It is called palatalization in linguistics. Palatalization occurs with a final consonant such as, ‘ㄷ’ or ‘ㅌ’, In other words, when a morpheme such as ‘ㄷ’ or ‘ㅌ’ meets a grammatical morphemes starting with the vowel ‘ㅣ’ or semi-vowel ‘ㅣ’, it changes to ‘ㅈ’ or ‘ㅊ’. And when a morpheme, ‘ㅎ’ appears after ‘ㄷ’ ‘ㄷ’ and ‘ㅎ’ are combined creating ‘ㅌ’, and it changes to ‘ㅈ’. Let’s take a look at examples. The word ‘굳이’ seems to sound like ‘구디’ when ‘ㄷ’ and ‘ㅣ’ meet, but as palatalization occurs, it is read as ‘구지’. When ‘굳다’ is followed by a grammatical morpheme ‘은’ Because palatalization does not occur, it is read aloud as ‘구든’. The same goes for the combination of ‘발’ and ‘이’. When the sound ‘ㅌ’ is combined with ‘이’, it is read as ‘바치’. The combination of ‘갈’ and ‘이’ is also read as ‘가치’. This phenomenon is called palatalization. In

addition, it was said earlier that when the sound of ㄷ and the sound of ㅎ are combined, it becomes a contraction and becomes a sound of ㅌ. In the palatalization environment, ㅌ is changed to the sound ㄸ that corresponds to the palatal sound, such as ‘구치다’ and ‘다치다’.

Now, let's take a look at vowel insertion. Vowel insertion is used in environments where consonants are followed by consonants are followed. Vowel insertion is a vowel inserted between two consonants to avoid collision between consonants when consonants are sounded consecutively. For example, when ‘먹’ in ‘먹다’ is combined with the connective ending ‘면’, the consonant ‘ㄱ’ of ‘먹다’ and the consonant ‘ㅁ’ of ‘면’ are connected in succession. To avoid this, if ‘ㅡ’ is placed between them, it is read aloud as ‘먹으면’. On the other hand, when ‘가’ of ‘가다’ and ‘면’ are combined, ‘ㅡ’ does not come in between because vowels and consonants are combined consecutively. That's why it is conjugated as a ‘가면’. Contrary to this explanation, some scholars view ‘가면’ as a combination of ‘가다’ and ‘-으면’ to avoid vowel collisions, and ‘-으-’ is deleted.

Next, let's study the phenomenon of neutralization of consonant endings. A plosive or consonant ending does not ‘explode,’ that is, it does not make a popping sound. It means that the sound ends in a restricted state, that is, in a closed state. For example, in ‘밥, 국, 된다’, the initial consonant and the final consonant are the same, but they sound different. For example, it sounds like ‘ㅂ, ㅌ, and 읍’. The initial sound of the word initial does not burst like ‘ㅂ’, but The word final consonant ‘읍’ is the same consonant, but it sounds like ‘읍’ in a closed state. However, when these final consonants are followed by particles or endings starting with vowels, final consonants are realized as plosives. For example, if ‘밥’ is followed by the particle ‘이’, it becomes ‘바비’. And when the particle ‘이’ comes after ‘국’, it becomes ‘구기’. Even when using verbs such as adjectives or verbs, it is like ‘줍아’ rather than ‘조바’, and ‘노가’ rather than ‘녹아’ the final consonant at the end of the word goes to the beginning of the next syllable and is realized as a plosive.

Next, we look at nasal assimilation and neutralization of plosives. Nasal assimilation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non-nasal sounds become nasal.

In ‘밥 먹어’, ‘ㅁ’ the final sound of ‘밥’ realized as a closed sound like ‘음’. It is not nasal in ‘밥’, but when it comes with ‘먹어’ but ‘음’ changes to ‘음’ such as ‘밤 먹어’. This phenomenon of changing the sound of ‘음’ to a nasal sound like ‘음’ is called nasal assimilation. Because it is a phenomenon that is changed to the same nasal sound by an adjacent nasal sound, it is also called nasal assimilation, or nasalization for short. There is also a phenomenon called neutralization of plosives. ‘앞’ in ‘앞에’ and ‘뒤에’ has the final consonant, ‘ㅍ’, but it is actually read as is ‘ㅁ’, which is realized like ‘압’. ‘부엌’ is also realized as neutralization of plosives like ‘부억’ rather than ‘부억크’. Sounds that are adjacent to each other change into similar sounds. Or there are also these various phonological phenomena that are replaced by similar sounds.

Next, we will look at th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In Korean, even though they have the same places of articulation and manners of articulation method, they have a unique feature that distinguishes three phonemes within them. For example, in the case of ‘불, 뿔, 풀’, everyone puts both lips together to make sounds, ‘ㅂ, ㅍ, ㅃ’. It is characterized by making a sound with a common manner of articulation called a bursting sound, such as the rupture sound ‘ㅃ’. Each of these three sounds has a different meaning. First, reading it in a plain sound, ‘불’, Second, reading it in tense, ‘뿔’ on a head. And third, when it is aspirated, it has a different meaning, like ‘풀’ in the field. As such, consonants are divided into three phonemes: plain, tense, and aspirated. On the other hand, in English, in the case of the p sound is a bilabial and a plosive. The sound b is made with sam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It is the sound represented by the letter b. They are distinguished by the properties of unvoiced p and voiced b, respectively. In this way, by the same places and manners of articulation only two phonemes are distinguished in English. It can be said that Korean has a more complex pronunci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Korean does not allow multiple consonants at the beginning. When two or more consonants are used together at the beginning, that is, the first part of a word, it is called a word initial consonant cluster. In Korean, this initial cluster of consonants is not allowed at all. On the other hand, English allows initial consonant clusters. For example, in the case of

‘strike’, three consonants are used together, such as ‘str, str’. If you translate this word into Korean, you should pronounce it as ‘스트라이크’ but it is not read like this in Korean. Instead, each consonant is syllabized, like in ‘스트라이크’ so it sounds like five syllables, unlike English. However, in the case of ‘꿀, 딸, 불, 쌀, 짬’, it looks like there are two consonants. If you look at ‘ㄱ and ㄱ’ and ‘ㄷ and ㄷ’ like this, it looks like there are two consonants. This is similar in notation, but it is not an initial cluster of consonants, that is, two or more consonants. ‘ㄱ, ㄷ, ㅌ, ㅊ, ㅍ’ used here. These ‘ㄱ, ㄷ, ㅌ, ㅊ, ㅍ’ sounds are not consonant clusters, but are consonants in themselves. Consonants are written in succession only for notational purposes in order to mark tense sounds, i.e. hard sounds. It can be said that a consonant sound is not a double consonant sound, but a single consonant sound.

In modern Korean, compared to other languages, prosodies within words, especially tones, are not used much. In Korean, unlike English or Chinese, tones are not used to distinguish sounds. However, some of these explanations are correct and some are incorrect. In other words, not all Korean is like that. For example, in the case of standard language, central dialect, or southwest dialect, this explanation is correct, but in the case of the Southeast dialect or the Yŏngdong dialect of Kangwŏn-do, distinction of phonemes corresponding to tones or high and low accents is used. Instead, in the standard language, meanings have been distinguished not by high and low, but by length, that is, long and short. For example, it is a rule to pronounce ‘말:’ long. It is a rule to pronounce ‘말’, a running horse, short. Although it sounds the same, ‘말’ and ‘말:’ are distinguished. It can be said to be a characteristic of the Central dialect or the Southwest dialect. However, recently, it appears that the distinction by this rhythm is rarely mad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outheast dialect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Korean dialects, they use tones or high and low accents to achieve phonological distinction. For example, ‘0’ meaning the number 2 in the Southeast dialect is ‘0̈́’. And ‘0’ corresponding to the letter E is ‘0̈́’. In this way, the phoneme is the same, but the meaning is distinguished by using the prosody, that is, a high-low pitch is placed on it differently.

3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2

–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Next, let's look at grammatical features. Korean is known to belong to an agglutinative language typologically. Agglutinative languages are languages that express various grammatical functions by combining particles or endings with the stems of predicate words such as nouns and pronouns or verbs and adjectives. For example, '철수-가 영화-를 만나-았-다.' In this way, a particle or ending such as '가', '를', or '-다' is combined with the preceding body word or verb to create a sentence that says, '철수가 영화를 만났다.' Particularly, particles play an important role in allowing nouns, pronouns, etc. to be combined, and endings to be used with more diverse functions by combining verbs and adjectives afte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come. For example, '너가, 너를, 너의, 너에게, 너랑', And like '만나기를, 만나고, 만나서, 만났니, 만나라, 만나자, 만났구나', Particles and endings allow words to be used in a variety of contexts and functional meanings. Similar to English, which is an inflectional language, endings are sometimes added, such as 'go' becoming 'goes'. However, you can also see internal changes, such as 'sing-sang-sung', which means to sing. In that respec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which are agglutinative languages.

One of the most important grammatical features of Korean is the word order of Korean. Unlike English or Chinese, Korean has a word order structure of subject-object-predicate. The predicat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composition of a sentence, comes last. This also affects the word order of a modifier and a word that is modified. Usually, modifiers are less important, that is, a modifier comes before the word it modifies. Like '새 책, 착한 마음', modifiers in order come first. Words that are modified come after modifiers. In Korean, word order is generally well followed. Since the role of the sentence constituents is indicated by a particle, naturally the word order of the subject or object is reversed, or the subject is omitted. For example, like '영화를 철수가 만났다.', Even if the order of the subject "철수가" and the

object ‘영희를’ are reversed, there is no effect on the formation and meaning of the sentence. This phenomenon is especially visible in spoken language.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hat cannot be left out is honorific. In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are grammatically and lexically developed. For example, ‘할아버지가 죽을 먹는다.’ is ungrammatical, that is, a wrong sentence, because the honorific is wrong. ‘할아버지께서 죽을 잡수신다.’ is the correct sentence. Also, as in ‘할아버지를 뵈고 궁금한 것을 할아버지께 여쭙보기로 했다.’, ‘뵈다’ or ‘여쭙다’ sometimes honorifies the object or adverb rather than the subject.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stener and the speaker, the form of the word is changed in various ways. To a listener who is younger than the speaker or has a lower status, expressions such as ‘그만 가라. 그만 가. 그만 가게.’ can be used. To a listener who is older than the speaker or has a higher command, ‘가오. 가요. 가십시오.’ are used. We also use different words to address the same thing. For example, words that mean ‘아빠’ are honorified by using other words, such as ‘아버지, 아버님, 부친’. In terms of someone else's father, words such as ‘춘부장, 춘장, 춘부대인, 노대인, 부군, 어른, and 존대인’ are also used. Other words such as ‘연세, 춘추’ are also used to mean ‘age’.

4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3

- 한국의 지리와 역사, 문화적 특징

In order to help understand Korean dialects, it is necessary to have an understanding of Korea's geography and history. Looking at the map here, let's start by talking about where Korea is located. This is a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rt marked in dark green on the map i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slands adjacent to it. And about half of this Korean Peninsula is the Republic of Korea, today's Korea. This region is located in the northeast of the world map, so i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Northeast Asia. Directly above are China and Russia, and to the east are Japan. As such,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between superpowers with great military and economic power. Historically, we have had constant contact and exchan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and in some cases we have also clashed forcefully. This history of exchanges and wars has been repeated for over 2,000 years dating back to B.C.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ialect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important historical facts related to dialects. Koguryŏ, Paekche, and Silla should be traced back to when the Three Kingdoms period unfolded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movie is based on the story of the three kingdoms of Koguryŏ, Paekche, and Silla who fought fiercely to occupy the Korean Peninsula. Some of the content is dramatized and some are historical facts. This film is based on the imagination that the languages of the three countrie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would have had their own characteristics, just like the dialects of each region today. Then let's watch the video together for a moment.

As shown in this map, the three kingdoms of Koguryŏ, Paekche, and Silla ruled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Manchuria. From B.C. to the mid-to-late 600s, numerous fierce battles were fought to occupy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untry marked in red on the map on the left is Koguryŏ, the country marked in green is Paekche, and the country

in blue is Silla. This map shows the territory just before Silla unified the three kingdoms. Paekche mainly includes the southwestern, Ch'ungch'ŏng and Honam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Silla mainly includes the Southeast and Yŏngnam regions.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Silla expanded its territory. It can be seen that the central region was also incorporated into Silla's territory.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rea north of it, which is now the area of North Korea, corresponds to the territory ruled by Koguryŏ.

When you look at the map to the right, you can see that the phonological and lexical features of today's dialects are somewhat divided between East and West. It can be thought of as a reflection of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Paekche and Sil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course,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to geographical feat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ountain ranges. We will explain this in detail a little later. When Silla unified the other two of Three Kingdoms, After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Silla, a single ruling power ruled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end of Unified Silla, Late-Koguryŏ and Late-Paekche were established. As Koryŏ, which declared that it inherited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Koguryŏ, became the dominant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ule of a single power continued. For hundreds of years from the founding of Joseon to the loss of its national sovereignty by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peninsula was unified by a single ruling power that developed within it.

In 1910, the Japanese imperialist forces took away the sovereignty of the Empire of Korea, and began to rule by force. At this time, many Koreans rejected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many of them migrated to Manchuria or Primorsky Krai, located in today's China. Today, in this area called Jilin Province in China, people called 'Chosŏnjok (Korean-Chinese)' live as a minority in China. It can be seen that many of their ancestors moved their livelihoods by choosing a large-scale migration during this historical proc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who had left Chosŏn and moved to Manchuria or Primorsky Krai, lived there maintaining their identity.

As mentioned earlier, there were many people who rejected Japanese colonial rule and left, so they joined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army. They inflicted considerable damage on the Japanese army through the battles of Ch'öngsan-ri and Pongodong. However, in order to disintegrate the organization of the Independence Army, the Japanese Empire launched a draconic counter-insurgency campaign. The Independence Army, which was inferior in terms of weapons and military organization and supply, went over to the Primorsky Krai. The independence fighters suffered great loss, such as attacks from Russia. Many of the independence fighters who fled to Primorsky Krai to escape the suppression of Japanese soldiers and the Koreans who migrated along with them were forcibly dispersed to various countri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in Central Asia by Stalin's forced migration policy in the Soviet Union. Today, they include Kazakhstan, Uzbekistan and Ukraine belong to this region. Many died of cold and hunger. These Korean migrants were called Koryŏin and Karei, and have been living with their identity as a Korean people to this day.

On the other hand, many other Koreans moved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o were ahead of modernization and had relatively more jobs, built a community and lived in i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arge-scale collective migration of Koreans began in Japan, China, Russia, and Central Asia for various reasons. Today, there are Koreans living in Japan, called Zainichi, Korean-Chinese, and Koryŏin. In the last week of this class, we will briefly look at their pres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they use.

Meanwhile, Japan, which caused the Pacific War, unconditionally surrendere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peninsula enjoyed the joy of independence, but this was short-lived. Today, as Soviet troops entered North Korea and US troops entered South Korea, the seeds of ethnic conflict and division were sown. On June 25, 1950, less than five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North Korean troops began to invade the South.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and the Korean War. This movie is "태극기 휘날리며," a movie that realistically depicts the tragedy and pain of division that

two brothers experienced during the Korean War. We're going to watch a part of this movie for a while.

After Liberation, the two Cold War powers developed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communism in North Korea. After three years of devastating wa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uffered the tragedy of complete separation. After the armistice in July 1953, people's movement was strictly restricted for several decades. In 1998, an important incident in which a businessman drove cattle to North Korea led to overland tours of Mount Kumgang. However, as a series of incidents occurred, the door to the armistice line was firmly closed again. As such,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and the ruling power and system are different, so each country's standard language has been established differently. What corresponds to South Korea's standard language is called "cultural language" in North Korea. South Korea established its standard language and cultural language, respectively, based on the language of its capital, Seoul,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language of its capital, P'yŏngyang. This cultural language is generally described as being based on a regional language that is regionally equivalent to the Northwestern dialect.

Then, let's briefly study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 Korean dialect studies, when Korean dialects are divided according to dialect divisions, they are divided into six major dialect areas. First, the central part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west, divided into east and north, there are the Central dialect area, the Northwest dialect area, and the Northeast dialect area. As you go down south, it is common to divide into the Southwest dialect, the Southeast dialect, and the southernmost Cheju dialect. Since this is related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complex way, knowing about the ge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of great help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ialects.

First, in terms of dialect division, some regions of the Northwest, Northeast, and Central dialect regions, let's take a look at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North Korea. P'yŏngyang, the capital of North Korea, is located in P'yŏngan-do,

and P'yŏngan-do above it is also called P'yŏngan-do. The P'yŏngan-do region is in the Northwestern dialect area in terms of dialect division. If you go east from the Northwest dialect area, you will find Hamgyŏng-namdo and Hamgyŏng-bukto. They are also collectively called Hamgyŏng-do, and are considered to belong to the Northeast dialect. In between, there are administrative districts such as Chagangdo and Yanggangdo. These are newly established administrative districts in North Korea, but in Korean dialect studies, these newly created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explained mainly to be in P'yŏngan-do and Hamgyŏng-do without distinguishing them. In the south under the Northwest and Northeast dialect areas are Hwanghae-bukto, Hwanghae-namdo, and Kangwŏn-do. It is common to view Hwanghae-do and Kangwŏn-do as belonging to the Central dialect.

Now let's come down to the south and look at the dialect divisions of South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Dialectology explains Kyŏnggi-do, Seoul, parts of Kangwŏn-do, and Ch'ungch'ŏng-nambukto in South Korea as the Central dialect. As mentioned earlier,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the standard language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language of the Central dialect of Seoul. In addition, although Ch'ungch'ŏng dialect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standard language,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re is relatively little difference from the standard language compared to other dialects.

Chŏlla-bukto and Chŏlla-namdo are located in the southwest from the Central dialect region in term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is is called the Southwest dialect area. Large cities such as Kwangju and Chŏnju belong to this dialect group. Going east, in the southeast is the Southeast dialect group, which corresponds to Kyŏngsang-bukto and Kyŏngsang-namto in term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Large cities such as Taegu, Pusan, and Ulsan belong to this Southeast dialect group. The dialect of this region is also called Kyŏngsang dialect or Yŏngnam dialect. In contrast, the Southwest dialect is also called the Chŏlla dialect and the Honam dialect.

Lastly, there is Cheju Island, an island off the Korean Peninsula. The dialect of this region is called the Cheju dialect. As Cheju is surrounded by water and is isolated, it is unique in terms of communication compared to any other

dialect in Korea. We will explain this in a moment.

Since dialects are characterized as regional languages, it is also important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 In particular, Korea has diverse geograph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is is a picture that clearly show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Korea. This map roughly divides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half, showing the party with the blue symbol on the left and the party with the red symbol on the right getting more votes. This political characteristic of Korea is also expressed in terms of 'regional loyalty'.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se regions are also related to the socio-cultural features. There are also linguistic and socio-cultural commonalities between regions marked with the same color.

5차시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방언의 음운적 특징

Let's study the Korean phonological system. Let's study the Korean phonology system, focusing on the basic terms you must know. The specific, physical sound produced through the human vocal organ is called phonetic. Then there will be sounds that are not speech sounds and not sounds produced through the human vocal organ. We call such a thing an ūm or a sound. In addition, as an abstract sound that exists psychologically, the smallest unit of sound that distinguishes the meaning of words is called phoneme. Let's take a look at it through specific examples.

As mentioned earlier, phonemes are abstract and theoretical sounds. Phonetic, on the other hand, refers to real, specific, physical sounds. A phoneme is a combination of a phoneme and a prosody. Phonemes are consonants, vowels, and semi-vowels, and prosodies are things such as pitch, intonation, and length.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phoneme compared to phonetic. For example, in the case of '국어', the actual sound is pronounced as '구거'. At this time, if you separate and pronounce each sound, you can distinguish the sounds like 'ㄱ-k, ㅌ, ㄱ-g, and ㅈ'. The 'ㄱ' sound in 'ㄱ-k' and the 'ㄱ' sound in 'ㄱ-g' are phonetically different. The 'ㄱ-k' sound is closer to the 'k' sound, and the 'ㄱ-g' sound is closer to the 'g' sound. However, in the minds of native speakers of Korean, even when they hear the sound '구거', each 'ㄱ' sound is recognized as the sound corresponding to the same 'ㄱ'. Even though actual and concrete sounds are different, abstract and theoretical sounds can be recognized as the same. Such abstract and theoretical sounds are called phonology, and real, specific and physical sounds are called phonetic.

Then, among phonemes in Korean, I will first explain segments, especially consonants. What sound do Korean consonants make in which system, and how they make the sound is what I'll be explaining. Those of you who are studying now should look carefully at this system and familiarize yourself with

it. This is because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various phonological phenomena of dialects in the following lessons without confusion. So, let me explain this table from now on. First of all, this table corresponds to the system of Korean consonants. First, the terms at the top are places of articulation. In other words, it refers to places of articulation where the sound of the corresponding consonant is realized. Bilabial means that the sound is produced from the articulatory place called the labia, or both lips. Next, alveolar sound refers to the gum that touches the tooth or the hard part of the gum that touches the tooth. Next, what is called palatal or alveolar palatal when the sound is produced when the tongue is placed at the place where the teeth and gums touch. The places where the teeth and the gums touch is called alveolar. If you put your tongue back a little more than that, you'll feel the harder upper gums. The places corresponds to the hard upper gum by sending the tongue back in this way is called the hard palate or alveolar hard palate. The sound produced in that place is called a palatal or alveolar-palatal consonant. In this time, I will use the term palatal consonant for simplicity. Remembering how we just put the tongue on the hard upper gum, let's move the tongue a little further back into the throat. Next, if you put your tongue on your upper gum and send it all the way back, you will feel the soft gum part. The soft upper gum part is called the soft palate, and the sound produced at the soft palate is called the velar consonant. It is the last of the articulatory positions of consonants. Any further back than the soft palate, the tongue will no longer be able to reach. By the way, there is one more place of articulation. This is the case where the sound is produced at the place where the sound comes from the throat. The laryngeal or glottal sound is this laryngeal, also glottal, In other words, it refers to the sound that comes from the entrance of the vocal cords, the entrance of the sound. In this way, a total of five articulatory places are set for Korean consonants.

Next, let's move on to manners of articulation. If you look at the top of the left side, there is a manner of articulation that is called a plosive or a stop. A plosive is a closing and popping sound. It refers to a manner of articulation in which the process of closing and bursting occurs consecutively, such as 'ㅍ, ㅌ, and ㅋ'. As mentioned above, these plosives are divided into flat, tense,

and aspirated consonants. In other words, it is also classified as yesasori, toensori, and kōsensori. Below the next plosive is a manner of articulation called a fricative. A fricative is a case where friction, such as ‘ㅅ and ㅎ’, causes a sound that sounds like noise to the ear. Below that, the affricate is the sound of bursting and friction occurring simultaneously. It refers to the sound that friction occurs at the same time as it closes and opens like a ‘ㅈ’ sound. This articulation manner is called affricate. These plosives, fricatives, and affricates are called obstructive sounds because they are created by interference in the articulatory process.

The sounds below the affricate are the non-obstructive sounds, and among them, let's look at nasal sounds first. Nasal sound refers to the sound produced by the airflow of the nose as it escapes from the nose. If you put your finger on your nose like ‘응, 음, and 은’ and when the corresponding sound is heard, you will be able to feel the wind coming out of your nose touching your finger. This sound is called nasal. Lastly, there is a sound like ‘을’ or ‘를’, which is called lateral.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 lateral in the mouth in the oral cavity in this way, the air flow like wind escaping, water flowing, and at the same time, both sides of the tongue, when you say ‘을’, the airflow escapes from both sides of the tongue. It means that the air current flows, so it is called a liquid or a lateral because that they are produced on both sides of the tongue. These nasals and liquids are also called resonant sounds because they are non-obstructive sounds, and they are resonant, that is, sounds produced with reverberation.

This is how we learned about the places and manners of articulation. Korean consonan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laces and manners of articulation. First, on both lips, which is the most anterior in terms of places of articulation, consonants are created by closing and bursting. These are bilabial plosives ‘ㅂ, ㅃ, and ㅍ’. As I just mentioned, this bilabial stop sounds like a yesasori sound, that is, ‘ㅂ’, which corresponds to the ‘ㅂ’ sound in the case of a plain sound. Even if the place of articulation and the manner of articulation are the same, the manners of articulation is further subdivided into three phonemes, yesasori, toensori and kōsensori. When the place of articulation of labials is moved a little further back, the part where the teeth and gums

touch, the place of alveolars is located, and the stops produced at this place is called alveolar stops. These sounds, ‘ㄷ, ㅌ, and ㅌ’ correspond to alveolar stops. Stops made, at the velar place, further back from alveolar, is called velar plosives. Sounds like ‘ㄱ, ㅋ, and ㆁ’ fall under velar stops. Based on these three sounds, ‘ㅁ’, ‘ㄷ’, and ‘ㄱ’, Bilabial, alveolar stops,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stops among obstructive sounds in Korea, and velar stops can be explained.

Next, fricatives sounds come from two articulatory places. First, alveolar fricative. They are ‘ㄴ and ㄵ’. This sound corresponds to the ‘ㄴ’ sound in Korean. These fricatives occur in the glottis along with alveolar fricatives. It's the ‘ㅎ’ sound. The sound of a consonant like ‘ㅎ’ is called a laryngeal or glottal fricative. Fricatives are realized only at one articulatory place. As for Korean consonants, There is an affricate sound that is realized at the hard palate place, and the corresponding sound is the ‘ㅈ’ sound. It includes ‘ㅈ, ㅊ, and ㅉ’. So far, among Korean consonants, we have looked at the sounds that correspond to obstructive consonants.

Next, there are resonant sounds which are nasal. These are the labial nasal sound, ‘ㅁ’, and the alveolar nasal sound, ‘ㄴ’, and the velar nasal sound ‘ㅇ’. As for liquid sounds, which are created at the place of alveolar, this is ‘ㄹ’ or ‘을’. This Korean consonant system is a direct help in understanding the phonology of dialects, so you should be familiar with it to some extent, so please take a look at it several times. Among the contents of this table, for example, palatalization refers to the case where a non-palatal sound is produced as a palatal consonant. In addition, nasalization, which was discussed earlier,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non-nasal sounds are produced nasally. If you understand phonemic phenomena within the consonant system,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m much more easily and naturally.

The next thing is the vowel system. The Korean vowel system restricts a total of 10 vowels to the standard type. Vowel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tongue and the height of the tongue. First, it is divided into front vowels corresponding to the front part of the tongue and back vowels corresponding to the back part of the tongue. And the height of the tongue,

that is, high vowels, middle vowels, and low vowels, are classified into vowels in a high tongue position and vowels in a low tongue position. The vowel that is realized as a high vowel, which is the high position of the tongue in the frontal position of the tongue, has the vowel ‘ㅣ’. Let’s read the ‘ㅣ’ vowel. When you make the sound ‘ㅣ’, your tongue comes forward and ‘ㅣ’, You will be able to feel that the place where you feel very lightly tickled is the articulation organ corresponding to the front part of the tongue. And, compared to ‘ㅗ’, the position of the tongue is relatively higher in ‘ㅣ’. If it is difficult to feel the height of the tongue, you can also feel it as the height of the chin. A high vowel is a vowel realized at a high position of the chin, such as ‘ㅣ, ㅗ, and ㅛ’. It will be easier to understand if you understand the vowel that is realized in the low position of the chin as low vowel.

In addition, vowels that gather round the shape of the lips are called round vowels, and vowels that do not gather are called plain vowels. For example, in the case of ‘ㅣ’, the shape of the lips is not round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round vowels, the sound is made by curling the lips like ‘ㅜ, ㅟ, ㅛ, and ㅝ’. So, the high, middle and low vowels produced in the frontal position, are divided into plain vowels of ‘ㅣ, ㅗ, ㅛ’ and round vowels of ‘ㅜ, ㅟ, ㅛ, ㅝ’. ‘ㅜ and ㅟ’, which are front round high vowel and front round middle vowel, are acknowledged in principle, these are pronunciations that are not often used in real life. In addition, ‘ㅗ’ and ‘ㅛ’, which correspond to front, plain middle and low vowels are indistinguishable in real life, except for specific cases such as announcer pronunciation.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vowel? Vowels produced at the back of the tongue. First of all, the high plain and low vowels are ‘ㅡ, ㅓ, and ㅕ’. You can see that ‘ㅡ’ is produced at the positions of the chin and tongue are high. As for ‘ㅓ and ㅕ’, you can see that the positions of the chin and tongue are relatively lowered. Also, when you curl your lips and make a sound like ‘ㅜ or ㅟ’, it is also a back vowel. If you read along with ‘ㅜ, ㅟ’, it feels like your tongue is rolled back like this when you say ‘ㅜ’. In this way, a total of 10 vowels are recognized as principles in the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method. Of course, as explained before, ‘ㅗ’ and ‘ㅛ’ are not well distinguished. ‘ㅜ’ or ‘ㅟ’ is also rarely used. I will explain more about this

later by talking about the vowel system of real pronunciation.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onsonants, we have seen three sounds: flat, hard, and aspirated. We've seen that despite the same places and manners of articulation, there are three different ways to articulate phonemes. '불', '쁠' and '플'. We recognize these three different sounds, and use them by distinguishing meanings. Not all places and manners of articulation make these three divisions. For example, in the case of fricative consonants, 'ㅅ' and 'ㅆ' are classified into only two types. 'ㅎ', there is no such distinction at all in the sound. Resonant sounds may no longer be divided according to manners of articulation. So, from now on, we will see how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vowels is actually pronounced, and how the pronunciation system of each regional dialect is different from the consonant or vowel system, focusing on the vowel system.

As mentioned earlier, a total of 10 vowels are prescribed in the standard pronunciation law principle for Korean vowels. However, if you look at the vowel system of dialects, there are often fewer than 10 vowels. For example, the system of vowels corresponding to the Southeast dialect, that is, the Kyōngsang dialect, assumes only six vowels. Let's look at the front vowels first. According to standard pronunciation, there are five front vowels. In the Southeast dialec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ㅏ' and 'ㅑ'. The front round high vowel 'ㅜ' and the front round low vowel 'ㅝ' are not used. In the vowel system of the Southeast dialect, there are only two vowels, 'ㅣ' and 'ㅑ'. In fact, i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standard pronunciation and the actual pronunciation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standard pronunciation.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ㅓ' is missing from the list of five back vowels of standard pronunciation. Back vowels in the Southeast dialect are used by replacing the place where 'ㅓ' would be used with 'ㅗ' or by replacing them with 'ㅡ'. So, for example, '어디' in "어디 가니?" is replaced with '으데'. 'ㅡ' is used where 'ㅓ' should be used. So, if you quietly observe the vowels of the Southeast dialect, the vowel 'ㅓ' does not appear often. So, even when viewed from the current vowel system, compared to the vowels recognized in the standard pronunciation, you can see that the dialect uses a

much simpler system.

As mentioned earlier, even in the standard pronunciation, the front vowels, vowels like 'ㅏ' and 'ㅑ' are not seen as actual pronunciation, it is permitted that they are not used in real pronunciation. Also, in the case of 'ㅓ' and 'ㅕ', it is admitted that they are used without distinguishing them as if they were a single vowel. Only two front vowels are recognized based on actual pronunci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difference even if the standard pronunciation law principle and what's realistically possible are distinguished for back vowels. In the case of the Southeast dialect, we can see that 'ㅗ' is not used.

Next, it is the Southwest dialect. Interestingly, you can see that there is no big difference from the new vowel system in the standard pronunciation law. Of course, it is common that the front vowels 'ㅓ' and 'ㅕ' are not distinguished well, but depending on the dialect speakers, 'ㅓ' and 'ㅕ' are distinguished. The region where the distinction appears more often is the Southwest dialect region. So, although it is not well differentiated, it means that it is often observed. This parentheses show that the vowel 'ㅓ' remains in the system.

Next, it is the Southeast dialect, the Kyōngsang dialect. As I said before, because the vowel 'ㅗ' is not used, 'ㅗ' is replaced with 'ㅡ' or 'ㅜ'.

And another thing to look at is the Northwest dialect, that is, the dialect that is the basis for the cultural language of North Korea today.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Northwest dialect depending on the age, that is, the generation. Based on the speakers born after Liber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vowel system is simpler than that of the Southeast dialect. In particular, since the 'ㅡ' vowel is not often used and the 'ㅗ' vowel is rarely used, only three back vowels are observed. For example, in the Northwest dialect, '어머니', which corresponds to the standard language of South Korea, is called '오마니'. It is sometimes called '오마니' or '아버지' is called '아바이' or '아바디'. If you think about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between 'ㅗ' and 'ㅜ' and 'ㅗ' and 'ㅜ' in '어머니', we can see that the vowel 'ㅜ' is not used in this Northwest dialect. The same goes for '아버지'. The vowel 'ㅜ' is observed as it is in the

dialect form, but we can see that the vowel ‘ㅏ’ is used instead of the vowel ‘ㅑ’ in ‘버’.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dialect phonology is the Cheju dialect. The most distinctive thing about the Cheju dialect is that ‘ㅓ’ is still used. Currently, ‘ㅓ’ is not observed in other dialects at all. In the standard language or dialects of other regions, ‘ㅓ’ is not used, but ‘ㅓ’ is observed only in the Cheju dialect. This ‘ㅓ’ is a vowel that originally existed historically. In all other regions, such as the Central dialect, the Southeast, and the Southwest dialect, it disappears. ‘ㅓ’ is no longer a vowel, but a phoneme or vowel in the dialect of Cheju Island.

6차시 한국어 방언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 - 몇 가지 예시

So far, we have studied about th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This time, we will study about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In order to study grammatical features, you must first learn about the basic grammatical units. They are words. A word is the smallest free morpheme. A free morpheme is a morphological unit that is used alone in a sentence without the help of other elements. For example, in ‘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 ‘그, 나무, 아직, 안, and 심었다’ are words. Like this, ‘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 is a sentence made up of 5 words.

There are even smaller units than words. A unit called a morpheme. Among these, a word is generally a unit that is used independently, that is, alone, without the help of other elements. In Korean, particles are exceptionally not in the free form, but are recognized as words because they can be easily separated.

Then, let's look at the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in Korean, which classifies and systematizes these words according to semantic criteria. First, let's take a look at nouns, pronouns, and numerals that are ch'eŏn. A noun is a word that indicates the name of a thing or state or event. These are words like ‘사람, 책, and 손’. A pronoun is a word that replaces the name of such a person or thing, such as ‘나, 너, 그’나 ‘그녀’, or ‘우리’. Numerals refer to the quantity or order of something. These are ‘하나 둘, 일, 이, 첫째, 둘째’. The next things are kwanhyŏngsa (noun modifier) and adverbs. These kwanhyŏngsa and adverbs are also called modifiers. The kwanhyŏngsa comes before ch'eŏn (nominal) modifying it. These are words like ‘새’ in ‘새 책’, ‘흰’ in ‘흰 옷’, and ‘모든’ in ‘모든 사람들’. An adverb is a word placed in front of yongŏn (verbs) or other word to clarify its meaning. These are ‘빨리’ in “빨리 가라” and ‘천천히’ in “천천히 와라”. And with the speaker's instinctive surprise, feeling, call, and response form a word class. We call it 감탄사 (interjection). These are ‘아, 아, and 와’. I mentioned that in Korean, not only words that are used alone and

independently are classified as words, but exceptionally, particles are also classified as words. It is called a particle when it is attached to ch'eön or an adverb to indicate the gramma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word and other word. These are '가' of '철수가', '를' of '영희를', '는' of '나는', and '에서' of '집에서'. Finally, there are also verbs and adjectives that are classified as yongŏn. The verbs, '가다 and 먹다', indicate the movement or action of an object. In addition, the adjectives like '좋다' and '곱다' indicate the nature or state of things.

I mentioned earlier that Korean is typologically an agglutinative language. One of the things that show that Korean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is that it has particles and endings. There are three particles. The three are case, auxiliary, and connective particles. First of all, let's take a brief look at case particles. There is a subject particle that indicates a subject in a sentence, and there is a predicate particle. For example, '이/가' and '께서, 에서, 서' are subject particles that indicate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hese particles are also used in dialects in different forms or with different phonemes. There are predicate particles like '이' of '이다'. The object particle is '을/를', and the complement particle is the same as the subject particle. It is in the form of '이/가'. A total of 7 types of particles, such as kwanhyŏng particle, adverbial particles, and vocative particles, fall under the subcategory of case particles.

Endings that are usually used after pre-final endings are called word final endings. These final endings are divided into final, connective endings, and transformative endings, depending on their function. Final ending match the criteria of the five sentence types. Declarative endings are '-다., -ㅂ니다., and -습니다.' Imperative endings are '-느냐, -니, and -는가'. Imperative endings are '-어라, -거라, and -너라'. Suggestive endings are '~하자, ~하세'의 '-자-, -세, and -ㅂ시다'. Interjection endings are '-구나, -군, and -구려'.

Connective endings connect sentences. Coordinating connective endings '-고' and '-며' connect two independent sentences. Subordinate connective ending are '-어, -자, -면, and -니까'. Auxiliary particles connect main verbs and auxiliary verbs. These include '-어/아, -게, -지, and -고'.

There are endings that make a verb or an adjective look like a noun, an

kwanhyŏngsa, or an adverb. The noun particles are ‘-음 and -기’. Kwanhyŏngsa particles are ‘-은, -는, -을, and -던’. The adverbial particles are ‘-게, -도록, and -듯이’.

One of the easiest ways to find out how certain Korean words are used differently in different regions is called a linguistic map. This picture can be searched on the website oper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 government agency that carries out policies and research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such as the compilation of Korean linguistic norms and dictionaries,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regional dialects. This is from the regional language comprehensive information webpage oper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mong them, it shows how different forms of Korean ‘가위’ are used by region. Through the Internet search portal Google or Naver, you can also visit the homepage of comprehensive regional language inform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n, if you go back to the picture and look at this map picture, you can see that the Korean word ‘가위’ is used in different forms in different regions. First, if you look at the parts marked with red dots, they are regions where the standard language ‘가위’ is used. You can see that it is used in Seoul, Kyŏnggi-do, parts of Kangwŏn-do, and parts of Kyŏngsang-bukto. Looking at the linguistic map, you can see that a form other than the standard language "가위" is used in a wider area. At a cursory glance, you can see that there are a lot of areas marked with blue squares. These are regions that use the dialect form ‘가세 (kase)’ instead of 가위 for scissors. In some areas, only '가세' is used like this, but in some areas, you can see that the standard words "가위" and "가세" are used together. The pronunciation is similar, but in some regions, the form ‘ㄱ세 is used with the lower a vowel. It is the Cheju dialect. Also, looking at the Southeast dialect of Kyŏngsang-do, ‘가시개’ is used in the widest area. We can see that there are other forms like ‘가씨개, 가시개, and 까시개’.

The following is a linguistic map of ‘벼’ showing how it is used in each region.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an agrarian society, and rice farming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task. So, ‘벼’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vocabulary for Koreans. If you see the map, in the central region “벼” is used just as it is. Or, you can see that the similar form of ‘베’ is the most widely used. On the other hand, if you go down to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a form that is much more widely used than ‘벼’ appears. It is ‘나락’. ‘나락’ is used throughout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across the east and west. In some parts, ‘나락’ is mainly used, but there are also areas where ‘베’ is used together. In addition, the Cheju area is unusual in that it appears in a peculiar form, such as ‘나록 or 나룩’ rather than ‘나락’. However, not only is this form used, so is ‘나룩, 나룩’ and ‘벼, 베’ as well, used together. And in some areas of Ch’ungch’öng-namdo, ‘벼’ is simply expressed as ‘쌀’. ‘쌀’ originally refers to the rice that has been peeled off. We can see on the linguistic map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쌀’ and ‘벼’ in this region.

Now, let's take a look at the Korean word ‘마을’. The standard word ‘village’ is characterized by being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Korea. You can see that the red dot now covers the entir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some cases, ‘말’ or ‘큰말’ is observed instead of ‘마을’. Interestingly, in the southern regions, except for Seoul, Kyönggi and Kangwön, ‘마을’ and ‘동네’, that is, ‘ㅏㅣ’ of ‘동네’ and ‘ㅓㅣ’ of ‘동네’ appear in general. Also, in the Kyöngsang region, the form of ‘마실’ appears a lot.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race showing that the old word form of ‘마을’ was ‘ㅁㅊㅅ’. More clearly than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forms of old words remain in the Cheju area, such as ‘ㅁㅊㅅ, ㅁㅊㅅ, ㅁㅊㅅ’.

Finally, it is the linguistic map of the Korean word, ‘달걀’. ‘달걀’ is a native word that refers to the same object as the Sino-Korean word for ‘계란’. As you can see through the map, it is used in very different forms by region. Eggs sometimes appear as “eggs” marked with blue squares. It is mainly observed in Seoul, Kyönggi, parts of Kangwön, and Ch’ungch’öng. However, ‘달걀’ does not appear by itself, but rather coexists with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region, forms such as ‘달기알 and 달걀’ are observed or used in the form of ‘닥알’. In Kyöngsang, Chölla, and some areas of Ch’ungch’öng, it appears in the form of ‘달걀’, ‘다알걀, 달가알, or 달구알’. ‘닥알’ is

mainly observ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far away from the Ch'ungch'öng region. The same pattern is also observed in areas with no geographical link. Lastly, in Cheju, '득세기' is observed. It appears to be referring to '닭의 새끼'. Since '달걀' means '닭이 낳은 알', you can easily guess why this expression was used. We have studied together through examples of various vocabularies how individual vocabularies of Korean are used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region.

讲义

1차시 언어와 방언: 방언(方言)이란 무엇인가?

大家好！本次讲座，我们将学习韩语的方言。为了让大家对韩语的方言更加感兴趣，我们来一起观看一些主要以韩国方言为台词的韩国电影片段。

上面视频里的韩语都听懂了吗？“대통령님 보시소. 우리 마을에는 길이 읍니다.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这些台词中像‘보시소, 읍니다, 주시소’这些表达可能对于学过韩语的人来说也会有些生疏。还有视频中一开始出现的台词‘수학 경시대회 1등’这种表达，在表达方式上和标准韩语没有什么区别，不过在语调上却有很大的不同。韩国人经常把这种韩语叫做土话。学术上会把这种土话称为方言或者地方语。现在开始我们要学习的正是这种土话或方言。

为了学习韩语的方言，我们首先要了解什么是韩语。韩语是语言的一种。那什么是语言呢？语言是指把自己的想法或感受表达出来，传达给别人的话或者文字。我们真实体验到过的语言，像韩语，英语，汉语，日语，法语，西班牙语，德语这些，实际上都是通过各个国家的语言或者文字的形态来接触到的。大家在这次讲座中将要学习的正是韩语。

在韩语词典中是这样定义韩语的，韩国人使用的语言，一般认为，从形态上看是黏着语，语系上属于阿尔泰语系。用于韩半岛全域以及济州岛为首的韩半岛周边岛屿，语序是主语、宾语或补语，谓语的顺序。具有修饰语被放在被修饰语前面的特征。

根据韩语词典的定义来看，韩语是韩国人主要使用的语言。在某个单词后面黏上具有语法意义的成分，即在语言上具有黏连在一起表达的特征。例如，在‘저는 선생님입니다.’这个句子中，‘저’作为意义的主要部分，在后面加上具有语法意义的成分‘는’来一起表达，可以说这就是韩语的特征。还有在谱系关系上，即在历史上被认为属于阿尔泰语系。据悉，该阿尔泰语族包含韩语和日语、蒙古语、满语、土耳其语等。另外，在语序上，即单词排列的顺序上是主语、宾语、谓语的顺序，这和主语、谓语、宾语语序的英语和汉语有很大的差异。另一方面，韩语还有修饰语位于被修饰语前面的特征。指的是像‘새 책, 착한 마음’这类的排序。在词典中也定义了韩语主要用于哪些地区。即‘用于韩半岛全域以及包括济州岛在内的韩半岛周边的岛屿’，但是，韩半岛全域和济州岛或者周边岛屿使用的韩语都是同样的话和同样的语音组成的吗？

并不是那样的，正如在之前视频中看到的一样。像这样，在一种语言中，多个地区的使用的语言构成的一个语言体系就称为方言，即土话。在学术上，方言不仅包括这种地域的区分，也包括根据阶层来区分的语言体系。一般人熟知的方言概念就是土话，即只通行于某个特定地区的语言。像词典中解释的那样，韩半岛的各个地区，比如，像首尔和京畿道、江原道、忠清道、庆尚道、全罗道、济州岛这样，根据韩半岛地理上的划分，对应地区使用的语言我们可以称之为韩语的方言，韩语就是这样各地方言和方言聚集到一起构成的。

方言在音韵，即语言的声音、词汇、单词、语法、单词或句子的构造上虽然不同，但依然属于同一种语言。比如，我们对汉语中的广东话，和作为标准语的普通话做比较时，两者在音韵、词汇、语法等方面都有差异，但他们仍属于同一种语言，即汉语。韩语中的标准语和济州语，即济州方言，同样也属于一种语言。

作为方言的概念，一般来讲，土话狭义上指的是在某个地方使用的区别于标准语的话。仅从定义来看，标准语和土话看起来像是相互对立的，韩语中定义的标准语其实也是以某个地方方言作为标准来制定的。标准语终究也是一种地方方言，即，可以说是以一种称为以中部方言的方言为基础制定出来的。有些韩国人认为需要改掉方言，对方言持有消极的认知，但是标准语并不在方言之上，只是方言的一种而已。因此，何为优劣的看法是错误的。标准语是为了有效的沟通而随机选择的语言，这个看法比较合适。

另一方面，以方言作为研究对象的语言学的一个领域叫做方言学，即dialectology。方言学作为语言学的一个领域，在欧洲各国以及美国、中国、日本等其他国家都有普遍性的研究，在本次讲座中也会经常提及。通过以上提到的术语和概念，我们再来看一下本讲座的学习目标。通过这次讲座，大家可以了解到属于韩语的各种方言，体会丰富多彩的韩语方言。

考虑讲座的特性，以学术概念和体系为基础，充分介绍韩语的方言，让大家了解方言学中定义的韩语的地方方言和社会方言的特征，并且切身感受方言在沟通中的重要性，从这几个层面设计了讲座的内容。后半部分还将学习在全世界各地被广泛使用的韩语。可以说，在这次讲座上，作为重点来讲解的正是韩语的这种多样性。以此来理解韩语方言研究的各种方法论和成果，这也属于本讲座的目标。

从现在开始整理一下今后10周要学习的内容。首先，我们要学习关于语言和韩语以及韩语方言和方言学的主要术语和概念。还有为了更好地了解韩语的方言，还将简要学习一下韩国的地理、历史、文化等各种背景知识。一方面要了解什么是地域方言和社会方言，在韩语中这些概念是如何区分的，另一方面，通过韩语方言的语言学特征概况来了解韩语的词汇、音韵和语法特征。在之后的课程中，将了解各方言的音韵和语法，词汇方面的特征，以及各个年龄，时代和阶层方面的语言学特征。

如前所述，为了说明方言学上定义的韩语地方方言的特征，我们将同时学习韩语方言学的主要概念和术语。这部分将由申友凤教授给大家详细讲解。我们来了解一下韩语方言的划分，即哪个地区使用哪种方言的地理学划分，也会学习用于收集和整理方言资料所必备的方言调查。并且通过方言分化的概念来了解方言是通过何种方式进行区分的，还会了解一下方言之间的碰撞和接触产生的语言现象。

我们先了解方言学中的个别方言论，之后还会简单了解从学术研究的角度，如何分析由一种方言构成的语言体系。我们把某种方言的特征所呈现出来的地域上的分布称为‘方言分布’。根据这种方言分布进行地区划分就叫做‘方言划分’。根据方言的划分，韩语的方言可以分为中部、东北和西北、东南和西南、济州地区，这样划分的各地区方言的音韵、语法、词汇方面的特征我们也将具体来学习。

另外，提到‘方言’，大多会想到地方方言，方言学中定义的方言不是只有地方方言，不仅地理因素，还有社会群体，即社会阶层或者年龄、性别、宗教、人种等社会因素也会造成语言的分化，我们称之为社会方言，社会方言常常作为和地理方言相对的概念被使用。如上所述，社会方言具有社会群体不同所使用的语言也不同的特点，因此与社会语言学(sociolinguistics)密切相关。语言的变异和分化往往是社会背景的差异反映出来的结果，因此，社会语言学研究社会阶层、年龄、性别、宗教等社会因素对语言分化产生的影响。社会语言学家的主要业绩中，例如，印度的等级社会里，阶级差异带来的语言差异，以及美国社会中黑人和白人之间的语言差异等，阶层和人种之间的差异形成的社会方言的研究成果占据了一席之地。如果地方方言的差异太大，给语言沟通造成困难的话会怎么样呢？就会出现各种混乱和低效率的社会问题。因此，有些国家会制定标准语，即standard language，政策上规定只使用一种语言和文字。为了理解标准语和方言的关系，以及标准语概念的成立，我们将学习语言规范这些必要的规定，这些内容将由孙多正教授给大家详细讲解。

这样看来，我们理解和学习地域方言和社会方言的目的终究是为了更好的沟通，关于实际沟通中如何使用方言的问题，孙多正教授也会给我们做趣味性讲解。

我们在前面提到，韩语在词典中的定义是在韩半岛全域以及济州岛为首的韩半岛周边的岛屿上使用的语言。不过，今年来，随着韩国和韩语在全世界受到关注，韩语也超越韩半岛，成为在全世界范围内使用的语言。在这个讲座的最后一部分，我们将了解世界中的韩语，其中，随着韩国人大规模移居海外生活，特别是有些地区为了保持韩国人的认同感而不懈努力，我们将学习这些地区的韩语。其中，我们将简单了解那些在日本、中国和前苏联地区各国集体生活，并至今仍在使用韩语的群体的现状和他们的语言。

2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1 -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方言是在一种语言中根据使用地域和社会阶层而分化形成的语言体系，意味着不是只在某个地方使用的标准语，在这个意义上，很多人把方言叫做土话。方言学是以方言作为研究对象的语言学的一个领域。

在这次讲座中，为了系统地学习方言，将以方言学的主要术语和概念以及体系为基础来讲解韩语的方言。因此，我们有必要理解方言学的细分领域，包括方言音韵论、方言语法论、方言词汇论。为了更好地理解这些理论，我们首先要学习韩语的音韵、语法、词汇方面的基础知识，这样才能更准确地把握韩语方言的主要特征。这里我们将与其他语言进行比较，简单了解韩语固有的音韵、语法、词汇特征。

我们首先了解一下韩语类型学特征中的音韵特征。这里的类型学 (typology) 指的是语言类型学，是语言学的一种方法论。类型学是指在语言学中调查世界多种语言，并单纯地进行分类的研究。更进一步来说，类型学不仅停留在单纯的调查和分类上，而是将其普遍化，研究寻找人类语言普遍现象的学科。

首先，韩语的音韵特征中最具代表性的就是元音和谐现象。元音和谐是指在两个音节以上的单词中，后面的元音受到前面元音的影响，接近或成为相同声音的语言现象。像‘ㅏ, ㅗ’这类元音叫做阳性元音，‘ㅏ, ㅗ’这样的阳性元音后面的音节也会出现阳性元音，像‘ㅓ, ㅜ’这类阴性元音后面会出现阴性元音互相协调的现象就称为元音和谐。例如，‘사과를 깎아, 길이 좁아’中的‘깎아, 좁아’相同的元音‘ㅏ, ㅏ’或者同属阳性元音的‘ㅗ, ㅏ’会前后相继出现。另外，‘숨어, 굶어’的情况也一样，同样是阴性元音的‘ㅜ, ㅜ’前后相连。

除此之外，在韩语的拟声词和拟态词中，也能轻易观察到这种元音和谐现象。例如‘반짝반짝, 번쩍번쩍’等例子也反应了元音和谐现象，我们能够看到相同的元音‘ㅏㅏㅏㅏ, ㅓㅓㅓㅓ’前后相继出现的情况。此外，像‘알록달록, 얼룩덜룩’，还有‘물이 졸졸 흐른다’中的‘졸졸’，‘졸졸 흐른다’中的‘졸졸’都是元音和谐现象。

其次是头音法则这一特征。头音法则是指部分声音不能出现在词首，或者转变成其他发音的现象。词首，即单词的第一个部分出现的‘ㄹ, ㄴ’会受到后面元音的制约。例如，在‘ㅏ, ㅓ, ㅑ, ㅕ, ㅠ’前面的‘ㄹ, ㄴ’会消失，在‘ㅏ, ㅓ, ㅑ, ㅕ, ㅗ, ㅛ, ㅜ, ㅠ’前面的‘ㄹ’会变成‘ㄴ’。

我们来看一下实际的例子。汉字词‘닉’和‘명’结合起来不读‘닉명’，而是读‘익명’。还有

原来的汉字音虽然是‘녀’, 但并不是‘녀성’, 其发音和标记都为‘여성’. 制作食物的‘요리’原来也是汉字音‘료리’, 但是不会那样读写, 而是用‘요리’来读写, 由于 出现在‘ㅂ’前面的‘ㄹ’这个音消失了. ‘낙원’也用‘낙원’取代原来的汉字音‘락원’, ‘노동’代替‘로동’, ‘내일’代替‘래일’来读写. 这就是头音法则.

下面介绍一下顎音化现象. 顎音化, 语言学上叫做palatalization. 顎音化是指收音‘ㄷ, ㅌ’即形态素‘ㄷ, ㅌ’和元音‘ㅣ’或者半元音‘ㅣ’开头的形式形态素、语法形态素结合时, 发成腭音‘ㄷ, ㅌ’, 也指‘ㄷ’后面出现形式形态素‘히’的时候, ‘ㄷ’和‘ㅎ’结合形成的‘ㅌ’会变成‘ㄷ’的现象.

我们来看一下例子. ‘굳이’这个词中的‘ㄷ’和‘ㅣ’结合后好像应该发‘구디’这个音, 但是随着顎音化现象的发生, 却读成了‘구지’. 同样的单词‘굳다’后面是形式形态素‘은’的时候, 顎音化现象不会出现, 所以就读做‘구든’. ‘밭’和‘이’的结合也是如此, ‘ㅌ’和‘ㅣ’结合后读作‘바치’, ‘갈’和‘이’结合后读作‘가치’. 这种现象称为顎音化. 另外, 之前所讲的ㄷ和ㅎ结合后省略成ㅌ的发音, 像‘구치다, 다치다’这些词, ㅌ在顎音化环境中, 会变成与之对应的顎音ㄷ来发音.

现在我们来看一下韩语的媒介元音. 媒介元音是在元音和辅音结合的情况下使用的, 媒介元音是指元音和辅音相连在一起发音时, 为了避免辅音之间的冲突, 介入两个辅音之间的元音. 例如, ‘먹다’中的‘먹다’和连接词尾‘면’结合时, 会出现‘먹다’的辅音‘ㄱ’和‘면’的辅音‘ㄴ’相遇的情况. 中间加上‘ㅡ’的话, 读成‘먹으면’就避免了这种情况. 相反‘가다’的‘가’和‘면’结合的时候, 因为是元音和辅音相连接结合在一起, 这之间就不需要加上‘ㅡ’, 因此用作‘가면’. 有些学者对此有不同的解释, 认为这是为了避免元音冲突, ‘가면’中的‘가다’和‘-으면’结合时, 元音‘-으-’脱落.

接下来, 我们将学习爆破音的不破音化现象. 指的是语末爆破音不破裂, 即不发出爆破的声音, 在闭锁的状态, 即闭合的状态下结束发音. 例如, 在‘밥, 국, 된다’中, 初声和终声是同一个辅音, 但发出不同的声音. 即发出‘ㅂ, ㅌ, ㅍ’这样的声音. 词首初声像‘ㅂ’一样会破裂出声, 终声‘ㅍ’虽然也是同一个辅音, 但是会像‘ㅍ’一样在闭塞的状态下发音. 但是, 这些终声后面跟的是以元音开头的助词或者词尾时, 这些终声的辅音会以爆破音发出. 例如, ‘밥’后面连接助词‘이’的话, 就是‘바비’. 还有‘국’后面连接助词‘이’的话, 就是‘구기’. 形容词或动词这样的谓词在活用时, 不是‘좁아’而是‘조바’, 不是‘녹아’而是‘노가’, 像这样, 词末终声的辅音会移到下一个音节初声的位置以爆破音被发出.

接下来是鼻音同化和平破裂音化. 鼻音同化是指声音从非鼻音转为鼻音的现象. 在‘밥 먹어’中, 词末终声‘ㅂ’发‘ㅁ’的音, 是以闭塞音来实现的, 虽然‘밥’没有鼻音, 但是它和后面的

‘먹어’相连发音时，像‘밤 먹어’一样，会出现‘음’转换成‘음’的现象，像这样‘음’转化成鼻音‘음’的现象我们就称之为鼻音同化。因为是相邻的鼻音变为同一鼻音的现象，所以也称为鼻音同化，简称鼻音化。

还有一种叫做平破裂音化的现象。‘앞에, 뒤에’中的‘앞’的情况，收音虽然发‘ㅍ’的音，但实际上是发‘ㅃ’的音，像‘압’一样展现出来的。同理，‘부엌’也不是‘부엌크’而是像‘부엌’这样，以平破裂音来实现的。像这种因为相邻而导致变成相似的发音或者被相似的发音取代的各种音韵现象广泛存在。

下面我们来了解一下韩语的类型学特征中的音韵特征。韩语中即使是相同的发音部位和相同的造音方法，即制造出声音的位置和方法，这其中也存在三种因素的区别，是其独特的特征。例如‘불, 불, 불’的发音都是双唇聚拢像发‘ㅃ, ㅃ, ㅃ’一样发出的声音，像爆破音‘ㅃ’发出破裂的声音一样，它们具有通过同样的发音方法来发出声音的特点。根据三种不同的声音，意思也各不相同，第一个发平音的时候是‘불’，第二个发紧音的时候是‘불’，还有第三个发送气音的时候也有不同的意义，是田野里的‘불’的意思。像这样通过平音，紧音和送气音的划分用来区别意思。相反，英语中同属于双唇音，其中爆破音p的情况，相同的发音位置和发音方法发出的声音还有b，这个声音用字母b来表示。它们分别以轻音p和浊音b的性质来区分的。如此看来，在英语中相同的发音位置和相同的发音方法发出的声音，只用两种音素来区分和使用。可以说韩语具有更加复杂的发音体系。

另一方面，韩语的词首不允许出现多个辅音。词首，即单词最开始的部分，一起使用的两个以上的辅音称之为词首辅音群。在韩语中，这种词首辅音群是完全不被允许的，与之相反，英语中词首辅音群是被允许的。例如，‘strike’中的‘str’就是3个辅音一起出现的。如果把这个词用韩语标记的话应该发‘스트라이크’的音，但是韩语中不能这样使用，和英语不同的是韩语把每个辅音都音节化，用5个音节的‘스트라이크’来发音。只是像‘꿀, 딸, 불, 쌀, 찹’这样的单词，看起来似乎有两个辅音，单纯看‘ㄱ和 ㄱ’, ‘ㄷ和 ㄷ’的话，的确是像有两个辅音，不过这只是标记上看起来相似，并不是两个以上的辅音，即词首辅音群，而是‘ㄱ, ㄷ, ㅌ, ㄴ, ㄴ’这些辅音，‘ㄱ, ㄷ, ㅌ, ㄴ, ㄴ’这些发音不是辅音群，只是单独的辅音，只是为了标记紧音，即硬音连续使用的几个辅音而已，

也就是说辅音不是发出两次声音，而是一个辅音的声音。在现代韩语中，与其它语言相比，单词内的韵素，特别是声调并没有区别性使用。就是说韩语和英语或汉语不同，声调不是用来区分音韵的。

但是这种说法一部分是对的，一部分又是错的，即韩语并不都是那样的。例如，对于标准语和中部方言以及西南方言来说，这个解释是对的，但是，对于东南方言或者江原道岭东

方言来说，使用中是存在对应声调或者高低的音韵辨别的。标准语中不是通过高低，而是用长度，即长和短来区分意思的。我现在和大家说话的这个‘말’，原则上要读地长一些，而奔跑的‘달’，原则上就要读地简短一些。像这样，虽然是同样的发音，但是‘말’和‘달’区分的使用可以说是中部方言或西南方言的特征，不过最近出现了几乎不按照长短来区分使用的情况。

另一方面，韩国方言中具有代表性的东南方言中，仍然使用声调或者高低重音这些音韵上的辨别。例如，东南方言中表达数字2的是‘이’，字母E对应的表达是‘이’。像这样，虽然音素相同，但通过韵素，即附加在上面的高低的差异来区分意思。

3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2

-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

接着来了解一下语法特征。众所周知，韩语在类型学上属于黏着语（agglutinative language），黏着语是指通过在名词和代词这样的体词，或者动词和形容词这样的谓词的词根后面黏着不同的助词或者词尾来实现各种语法功能的语言。例如，‘철수-가 영화를 만나-았-다.’用这种方式，把‘가’、‘나’、‘를’、‘-다’这些助词或词尾与前面的体词或动词相结合，组成了‘철수가 영화를 만났다.’这句话。特别是助词结合在名词和代词等后面，词尾结合在动词和形容词后面，这样的结合对实现多种功能起到了重要的作用。像‘너가, 너를, 너의, 너에게, 너랑’或者‘만나기를, 만나고, 만나서, 만났니, 만나라, 만나자, 만났구나’这样，可以在丰富的语境中，以多种多样的意义来使用。在屈折语英语中像‘go’变形为‘goes’这样，后面也可以加上词尾，但是意指唱歌的‘sing-sang-sung’却呈现出内在的变化，在这点上，黏着语韩语和英语存在着差异。

韩语的语法特征中重推的是韩语的语序。与英语和汉语不同，韩语具有主语-谓语-宾语的语序结构，句子结构上最为重要的谓语出现在最后。这样的特性对修饰语和被修饰语的语序也带来了影响，基本上，不太重要的修饰语即修饰的成分出现在比较重要的中心语即被修饰的成分的前面。像‘새 책, 착한 마음’一样，顺序上修饰语，即修饰的成分在前面，中心语，即被修饰的成分出现在后面。韩语语序大体上会遵循这个原则，但是句子成分的作用能够根据助词来提示，所以自然会出现主语和宾语的语序互换，或者省略主语的现象。例如，像‘영화를 철수가 만났다.’这样，即使主语‘철수가’和宾语‘영화를’的顺序颠倒过来，对句子的成立和意义也没有任何影响。这种现象在口语，即口头语言中尤为常见。

另外，韩语的语法特征中必不可少的就是敬语法。韩语的敬语表达在语法和词汇上都很发达。比如在‘할아버지가 죽을 먹는다.’这句话中，敬语表达有误导致形成了病句，即这是一个错误的句子，正确的表达应该是‘할아버지께서 죽을 잡수신다.’另外，像‘할아버지를 뵈고 궁금한 것을 할아버지께 여쭙보기로 했다.’这样，‘뵈다’和‘여쭙다’不用来尊敬主语，而是用来尊敬宾语或补语。根据听话者和说话者，即听者和说者的关系，词语的形态也会出现各种变化。话者对比自己年龄小或者地位低的听者可以用‘그만 가라. 그만 가. 그만 가게.’这样的表达，但是话者对比自己年龄大或者地位高的听者要用‘가오. 가요. 가십시오.’这样的表达。尊称同一个对象也可以使用不同的词语，例如，意指爸爸的词语可以用‘아버지, 아버님, 부친’这些表示尊称的词汇，称呼他人的父亲还可以使用‘춘부장, 춘장, 춘부대인, 노대인, 부군, 어른, 존대인’这些词汇，也可以使用像‘연세, 춘추’这样不同的词语来表达年龄。

4차시 한국어 방언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3

- 한국의 지리와 역사, 문화적 특징

为了理解韩国的方言，首先有必要先了解一下韩国的地理和历史。

我们看着这个地图，先谈一下韩国位于哪里。这是韩半岛的地图，地图上用深绿色标记的部分是韩半岛及其附属岛屿，即邻近的岛屿，相当于韩半岛大约一半的部分便是大韩民国，即今天的韩国。该地区位于世界地图上的东北方向，因此也被称为东北亚。上面就是中国和俄罗斯，东边是日本，韩半岛地处军事和经济力量强大的国家之间。

历史上也与中国、日本等邻近国家有过不断地来往和交流，有时也会发生力量冲突。这些交流和战争的历史可以追溯到公元前，反反复复持续了2000多年的时间。为了理解韩语方言的特性，有必要参考与方言有关的重要史实，应该追溯到韩半岛由高句丽、百济、新罗三国割据的时代。

这部电影是为了占据韩半岛展开激烈战斗的高句丽、百济、新罗三国的故事为背景的电影，名为《黄山伐》。部分内容被改编了，但仍有反映历史事实的部分。这部电影假设三国时代各国的语言像现在各地的方言一样，具有各自的特征，在这种想象的基础上展开了故事情节。那我们先暂时一起看一下电影吧。

如地图所示，高句丽、百济、新罗三国是曾经统治过包括韩半岛以及满洲地区的国家。从公元前到600年中后期，为了争夺韩半岛的主导权，其间展开了无数次激烈的战斗。左边地图上用红色标记的国家是高句丽，用绿色标记的国家是百济，蓝色标记的国家是新罗。这张地图显示的是新罗统一三国前夕的版图，百济主要包括今天韩半岛的西南地区，忠清和湖南地区，新罗主要包括东南地区和岭南地区。这个时期是新罗扩张领土的时期，可以看出中部地区也被纳入了新罗的版图。另外，属于现在朝鲜地区的韩半岛北部及其北部地区都曾是高句丽统治下的领土。

通过右边的地图，可以看出现在的韩语方言在音韵和词汇特征上，东部和西部有一定程度的区别。可以想到的是这类似于三国时代百济和新罗各据一方的地理特征。当然，这也与连绵不断的山脉等地理特性密切相关，对此稍后再做详细说明。

三国时代的三个国家中的新罗统一了其他两个国家，统一新罗建国后，实现了单一势力对韩半岛的统治。统一新罗末期，虽然建立了后高句丽，后百济等国家，高丽阐明继承高句丽的历史和传统，随着高丽成为统治韩半岛的国家后，单一势力的统治得以延续下来。此后，从朝鲜成立到因日本帝国主义丧失国权为止，数百年来，韩半岛处在其中发展起来的单一势

力的统治下，一直是统一的。

1910年，日本帝国主义势力把朝鲜的国号改为大韩帝国，强行夺取国权，开始了武力统治。那时有众多朝鲜人拒绝日本帝国主义势力的统治，相当多的人移居到位于中国的的满洲以及沿海州地区。今天中国的吉林省，在这个地区，被称为朝鲜族的人们作为中国国内的一个少数民族聚集在一起生活。可以说他们大多数人的祖先是在这样的历史进程中，选择了大规模的移居，离开了生活的家园。在日帝强占期，这些朝鲜人离开朝鲜，把家园转移到满洲或者沿海州地区，并在那里维持着民族认同感生活至今。

如前所述，因为抗议日本的殖民统治而迁移的人数众多，他们也参与了抗日独立军，通过青山里战斗、风梧洞战斗等，沉重地打击了日本侵略军。但是为了瓦解独立军的组织，日本动员了大规模的军队来攻击独立军，在武器、军队组织、补给等方面处于劣势的独立军转移到了沿海州，遭遇了俄罗斯的自由市惨变，经受了巨大的惨痛。为了逃避日本帝国主义的围剿而迁移到沿海州的独立军和跟随他们移居的朝鲜人中，相当一部分人因为苏联斯大林时期的强制移民政策，被强制流散到中亚苏联地区的各个国家，像今天的哈萨克斯坦和乌兹别克斯坦以及乌克兰等都是属于这个地区的国家。他们中间很多人死于寒冷和饥饿，生活在苦痛中的这些人被称为高丽人，这些人依然保持着作为韩民族的认同感而生活至今。

日帝强占期，日本处于近代化前沿，能够提供相对多的工作机会，朝鲜人中也有相当一部分人移居到日本，聚集在一起生活。日帝强占期，当时因为各种原因，朝鲜人开始大规模移居到日本、中国、俄罗斯和中亚等地生活，今天这些同胞被叫做在日韩人、朝鲜族、高丽人等。在这个讲座最后一周的时间，我们将简单了解一下他们的现状和他们使用的韩语的特征。

另一方面，发动太平洋战争的日本帝国主义无条件投降于美国后，韩半岛享受了独立带来的喜悦，但这也是短暂的，随着苏联军队进入今天的北韩地区，美军进入南韩地区，种下了民族矛盾和南北分裂的种子。从日本帝国主义解放不到5年的1950年6月25日，北韩军开始了南侵，这就是韩国战争6·25战争的开始。这部叫《太极旗飘扬》的电影真实描述了韩国战争当时的两兄弟南北分离的悲剧和分裂带来的苦痛。我们先暂时欣赏一下这部电影的片段。

光复后，民族主义和共产主义两大冷战势力进军南韩和北韩，经过3年残酷的战争，南韩和北韩完全割裂，造成了南北分裂的悲剧。1953年7月停战以后，数十年间彻底限制了人口的流动，1988年一位企业家赶着牛群访问了北韩，以此为契机开启了金刚山的陆路观光。但是随着一连串事故的发生，停战线的大门再次紧闭。

如此一来，韩半岛南北分裂，由于统治势力和体制不同，两国的标准语也不同。相当于韩国标准语的语言在北韩被称为文化语，韩国以首都首尔的语言为中心，北韩以自己的首都平壤的语言为中心，各自制定了标准语和文化语。一般认为这个文化语在地域上是以相当于西

北方言的地区语言为基础来制定的。

那么我们简单学习一下北韓的地理特征。在韩国方言学中，按照方言区划把韩国方言分为6大方言区。首先，位于韩半岛中间的中部，还有西北，即位于西边和北边的西北以及东北被划分出来，可以分为中部方言区、西北方言区、东北方言区。南下有西南方言区和东南方言区，还有位居最南边的济州方言区，通常划分为这几个方言区。这与韩半岛的地理特点和行政区域等有着复杂的关联性，因此，了解韩半岛的地理常识对理解韩语方言的特征会有很大的帮助。

首先了解一下方言划分上西北、东北还有中部方言区的部分地区对应的北韓地区的行政区划。北韓的首都平壤位于平安南道，加上上面的平安北道，被称为平安道，在方言划分上，平安道地区的方言属于西北方言区，西北方言区东边的位置是咸镜南道和咸镜北道，这两者合起来也被称为咸镜道，属于东北方言区。他们中间有慈江道和两江道这些行政区域，它们是北韓重新划定的行政区域，韩国方言学对这些新兴的行政区域不再划分，以平安道和咸镜道为中心来进行说明。在西北方言区和东北方言区的下面，南边是黄海北道、黄海南道和江原道，普遍认为黄海道和江原道属于中部方言区。

接下来我们来到韩半岛南边，了解一下韩国的方言划分。在方言学中，韩国的京畿道和首尔、江原道的一部分和忠清南北道属于中部方言区。如前所述，标准语具有以属于中部方言的首尔地区的语言为基础制定的特征，虽然忠清方言和标准语有一些差异，但是与其他方言相比，一般认为忠清方言和标准语的差异并不是很大。中部方言区南下，西南侧是全罗南道和全罗北道这两个行政区域，称之为西南方言区，像光州和全州这样的大城市就属于这个方言区。往东走，东南位置有属于东南方言区的庆尚北道和庆尚南道两个行政区域，大邱、釜山、蔚山等大城市属于东南方言区。这个地区的方言又叫庆尚方言或者岭南方言，相比而言，西南方言也被称为全罗方言或者湖南方言。最后还有远离韩半岛的岛屿，济州岛，这个地区的方言叫做济州方言。济州岛是一个孤立的岛屿，所以与其他方言相比，在语言沟通上具有独特的特性，对此稍后再做说明。

方言具有地方语的特点，因此理解韩国各地区的特点也很重要。特别是韩国在政治、经济、社会、文化上都呈现出多样的地理和文化特性。这是一副明显体现韩国不同地区的政治特色的图，把韩半岛大致分为两半，地图上显示左侧是象征色为蓝色的政党，右侧象征色为红色的政党获得了更多的选票。韩国的这种政治特征也用地方主义来表达，这种地方政治指向的特征也和社会文化的特征有关，可以发现同一个颜色标记的地区之间具有语言上和社会文化上的共性。

5차시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방언의 음운적 특징

本次讲座将学习韩语的音韵体系。韩语的音韵体系中，以需要基本把握的术语为中心一起展开学习。

由人的发音器官发出的具体的物理声音称为语音。当然也有不是通过人的发音器官发出的声音，不是说话的声音，这样的声音我们称为音。另外，用心理上存在的抽象的声音来区分语义的声音中，最小的单位称为音韵。让我们通过具体的例子来理解一下。

正如前面所讲的，音韵是抽象的和理论上的声音，而语音则是指真实的、具体的、有物理属性的声音。音韵是音素和韵素的简称，音素是指元音和辅音、半元音，韵素是指高低或者语调、长短等。和语音相比较，来介绍一下音韵的例子。比如，‘국어’的实际发音是‘구거’，这时区分开每个声音，分别来发音的话是‘ㄱ-k, ㅊ, ㅊ-g, ㅣ’，像这样声音就被区分开来了。‘ㄱ-k’中‘ㄱ’的发音和‘ㅊ-g’中‘ㅊ’的发音从语音上来看是不同的声音，‘ㄱ-k’的发音接近‘k’，而‘ㅊ-g’的发音接近‘g’，但是，即使母语是韩语的人听到了‘구거’这个音，头脑中也会认为这两个‘ㄱ’的声音是同一个‘ㄱ’所对应的发音。就是说虽然实际的、具体的声音不同，但是作为抽象的、理论上的声音却可以被认为是相同的。像这样，抽象、理论的声音称之为音韵，实际、具体、物理的声音称之为语音。

那么，首先介绍一下韩语音韵中的音素，其中的辅音。说明一下韩语的辅音是在什么样的体系中如何发音，通过什么方式来发音。大家一定要看好并记住这个体系，才能不混淆接下来出现的方言的音韵现象，并更好地理解这些现象。那么，现在说明一下这个表，

首先这是一个韩语辅音体系的表。上面的术语是发音部位，指的是相应的辅音在发音时，声音在发音器官内所形成的位置。双唇音是指在两个嘴唇，即两唇的发音部位上形成的声音。接下来是齿槽音或齿龈音中的齿槽或齿龈是指与牙齿相连的牙龈，还有牙龈的坚硬的部分。下面的是硬腭音和齿龈硬腭音，发音部位是舌头放在牙和牙龈相连的部位，牙和牙龈相连的部位称为齿槽或者齿龈。如果把舌头再往后一点的话，就能抵着更硬的上牙床了，像这样舌头向后时，舌面抵著的硬硬的上牙床部分称为硬腭或者齿龈硬腭，在这个部位发出的声音称为硬腭音或者齿龈硬腭音。在这里我们简称为硬腭音来使用。记住刚才舌面接触到的硬硬的上牙床部分，把舌头向喉咙方向后卷伸进去，把舌头顶在上牙床的状态下，后伸的时候会感觉到柔软的上牙床部分，这个柔软的上牙床部位称为软腭，在软腭部位发出的声音叫做软腭音。最后一个辅音的发音部位。舌头伸到软腭之后，再往里就进不去了，但是还有一个发音部位，

就是从喉咙里发音的地方发出的声音。喉音或声门音就是喉咙或者声门，即声带的中间，声音的出口处发出的声音。就此，韩语的辅音中，一共设有5种发音部位。

接下来看一下发音方法吧。左边最上面的部分是爆破音或者叫闭塞音这种发音方法，爆破音是指先闭合后爆发的声音，像‘ㅍ, ㅌ, ㅋ’这些属于在闭合后爆发的过程中形成的发音方法。如前所述，爆破音分为平音、重音和送气音，也可以称之为松音、紧音和气音。爆破音下面是摩擦音这种发音方法，像‘ㅅ, ㅆ’这样，摩擦音是指产生摩擦而发出听起来像杂音的情况。下面的破擦音是指爆破和摩擦同时发出的声音，像‘ㅈ’一样，这样的声音是闭合后张开的同时产生摩擦发出的声音，对应的发音方法是破擦，通过破擦过程发出的声音叫做破擦音。

这种爆破音、摩擦音、破擦音都是在发音过程中气流受阻而产生的声音，称为阻碍音。破擦音下面的声音是非阻碍音，首先看一下其中的鼻音。鼻音是指鼻腔通气，依靠鼻腔里的气流产生的声音，像‘ㅇ, ㅁ, ㄴ’一样，大家把手指放在鼻子下面，发出相应的声音时，手指会感觉到鼻子里出来的气流，这样的声音就叫鼻音。

最后还有流音，或者称为舌侧音的‘ㄹ’或者‘ㄾ’这类声音。流音是像‘ㄹ’这样的声音在口腔内发声的过程中，气流像水一样流出的声音，同时气流从舌的两侧滑出而发出声音，也称为意指气流流动的流音，还因舌的两侧发出的声音，因此也使用舌侧音这个术语。这类鼻音和流音作为非阻碍音，发音时产生共鸣，即回响的同时发出声音，因此也称为响音。综上所述，我们了解了发音部位和发音方法。

韩语的辅音可以根据发音部位和发音方法来分类，首先，发音位置上最前面的是两唇的位置，在这个位置有通过闭合后爆破的方法形成的辅音，就是‘ㅍ, ㅌ, ㅋ’这样的两唇爆破音。像刚才所讲的，这些两唇爆破音发松音，即平音的时候对应的声音是‘ㅍ’。松音，紧音和送气音，即发音部位和发音方法即便相同，还可以再细分为3个音素来区分使用。两唇音在往后移动一点就是牙和牙龈相连的部分，叫做齿槽或者齿龈，这个位置上发出的爆破音称为齿槽爆破音或者齿龈爆破音，像‘ㄷ, ㄸ, ㅌ’这些声音就是对应的齿槽爆破音。发音部位再往后一点，在软腭处发出的爆破音称为软腭爆破音，像‘ㄱ, ㄲ, ㅋ’这些声音就是对应的软腭爆破音。以‘ㅍ’, ‘ㄷ’, ‘ㄱ’这3个发音为标准，我们讲述了韩语的阻碍音中最具有代表性的爆破音中的两唇爆破音、齿槽爆破音、还有齿龈爆破音和软腭爆破音。

接下来摩擦音的发音部位也有两处，首先是齿槽摩擦音，像‘ㅅ, ㅆ’这样的声音。韩语中的‘ㅅ’发音对应的声音，除了齿槽摩擦音，还有一种是在喉咙或者声门位置形成的摩擦音，就是‘ㅎ’发音，像‘ㅎ’这样的辅音对应的发音称为喉擦音或者声门摩擦音。韩语辅音中，破擦音只在一个发音位置形成，就是在硬腭部位形成的破擦音，对应的声音是‘ㅈ’的发音，‘ㅈ, ㅉ, ㅊ’这些是对应的发音。

至此，我们了解了韩语辅音体系中的阻碍音相对应的发音。响音中鼻音对应的发音包括两唇鼻音‘ㄹ’、齿槽鼻音‘ㄴ’、软腭鼻音‘ㅇ’三个发音部位形成的鼻音。另外，流音包括齿槽部位形成的齿槽流音或者齿槽舌侧音，对应的发音有‘ㄹ’或者‘을’。

大家需要对韩语的辅音体系有所熟知，对理解方言的音韵的现象才会有直接的帮助，因此多次重复是非常必要的。在这个表中，比如顎音化就是指不是顎音的发音变成顎音的情况，还有前面所讲的鼻音同化的情况，就是指不是鼻音的发音变成鼻音的情况。通过辅音体系的话，能更容易、更自然地理解这些音韵现象。

下面是元音体系。韩语的元音体系中一共限于10个标准元音。按照舌头的部位和高低可以给元音分类，首先可以分为舌前对应的前舌元音和舌后部分对应的后舌元音。还有根据舌面的高低，像高元音和中元音以及低元音这样，分为舌头在高处发出的元音和舌头在低处发出的元音。在舌头前面的舌前位置，舌面在高的位置形成的高元音有‘ㅣ’元音。跟着一起发一下‘ㅣ’这个元音吧。发‘ㅣ’的同时舌头向前伸，在轻微感觉痒的位置，就能感觉到对应的发音器官是舌头前面的部分。还有相比‘ㅍ’来说，‘ㅣ’的发音位置相对更高。如果很难感受舌头的高低的话，可以感受一下下颚的高低。像‘ㅣ，ㅍ，ㅍ’一样，下颚位置在高处形成的发音是高元音，下颚的位置在低处形成的发音是低元音，这样理解的话会更容易一些。还有扁唇和圆唇，唇形聚成圆形发出的元音叫做圆唇元音，嘴唇不聚集的元音叫做扁唇元音。比如说，发‘ㅣ’的时候，嘴唇不聚成圆形，相反，像‘ㅍ，ㅍ，ㅍ，ㅍ’这些圆唇元音，是嘴唇聚成圆形发出的声音。因此，舌前位置形成的高中低元音可以分为扁唇元音‘ㅣ，ㅍ，ㅍ’和圆唇元音‘ㅍ，ㅍ’。前舌圆唇高元音和前舌圆唇中元音各自对应的是‘ㅍ’和‘ㅍ’，在标准发音中，原则上是被认可的，但在现实发音中并不常用。还有前舌圆唇中元音和低元音对应的‘ㅍ’和‘ㅍ’，除了播音员等特殊情况，一般不怎么区分使用这两个发音。

接下来看看后舌元音吧。是指在舌头后面的位置形成的元音，首先后舌扁唇对应的高中低元音有‘ㅡ，ㅍ，ㅍ’这些。我们能感受到发‘ㅡ’的时候，下颚和舌头都是在较高的位置。到发‘ㅍ，ㅍ’的时候，下颚的位置相对往下一些，同时感觉到舌头也跟着低了。另外，嘴唇聚成圆形发出的‘ㅍ，ㅍ’相当于后舌元音。跟着发一下‘ㅍ，ㅍ’的话，发‘ㅍ’的时候，就能感觉到舌头收缩到后面。在韩语的标准发音中，原则上认可上述10个元音。当然，像上面所讲过的‘ㅍ’和‘ㅍ’实际上不做区分，还有‘ㅍ’和‘ㅍ’也是不常用，具有这样的特征，关于这一点，我们在后面的元音体系的实际发音中再做详细说明。

我们在前面讲过，辅音的分类体系中包括平音，重音和气音三种发音，即使是相同的发音部位、相同的发音方法，也可以按照发音方法再分为三类，分别作为不同的音素来使用。像‘불和 불和 불’这样，作为三种不同的声音被认知，并作为区别意义的单位来使用。不过不是

所有的发音部位，所有的发音方法都可以分为这三类，比如说，摩擦音‘ㄹ, ㄴ’只能分为这两种，‘ㅇ’的发音完全没有这种区分。还有属于响音的发音，根据发音方法也不再细分。那么，从现在开始，关于元音的分类体系如何实际发音，各地区方言的发音体系，以及辅音或者元音的体系有何不同，我们将以其中的元音体系为中心来讲述一下。

如前所述，标准发音中，原则上韩语元音一共有10个元音被认可，但是在方言的体系中，不到10个元音的情况普遍存在，比如东南方言，即庆尚方言的元音体系中只能列出6个元音。首先看一下前舌元音，在标准发音中前舌元音一共由5个组成，在东南方言中没有‘ㅓ’和‘ㅕ’的区别，而且也不使用前舌圆唇高元音‘ㅜ’和前舌圆唇低元音‘ㅟ’，东南方言的元音体系中只有前舌元音‘ㅣ’和‘ㅑ’这两个元音。这点和标准发音中认可的实际发音没有太大的区别，所以不算是太明显的特征。相反，在标准发音中的5个元音体系中，可以发现后舌元音缺少了元音‘ㅗ’的特点，东南方言中，使用后舌元音‘ㅗ’的情况，具有用‘ㅓ’或者‘ㅡ’来替代的特点。比如说“어디 가니?”的时候，‘어디’会发音为‘으데’也可以用‘ㅡ’来代替‘ㅗ’。因此，悄然观察一下东南方言的话，可以发现‘ㅗ’这个元音不怎么出现。所以从上面的元音体系来看，与标准发音上认可的元音相比，可以看出这里使用的是更加简单的体系。

正如之前所讲，标准发音上前舌元音中，像‘ㅓ’和‘ㅕ’这样的元音不是实际的发音，因此允许现实发音中不使用这些元音。另外，对于元音‘ㅓ’和‘ㅕ’，也认可像一个元音一样，不区分开使用。以实际发音为标准，前舌元音只认可上述两种情况。相反，后舌元音的情况，标准发音原则和实际发音上并没有什么差异，只是差异比较大的是东南方言中具有不怎么使用元音‘ㅗ’的特点。

下面讲一下西南方言。有趣的是，我们可以看出西南方言与标准发音中的新元音体系并没有显著差异。当然，也存在着前舌元音‘ㅓ’和‘ㅕ’不好区分的共同点，不过根据方言说话者来区分‘ㅓ’和‘ㅕ’，这种情况更常见的地区便是西南方言区。虽然不能很好地区分使用，但是能够观察到区分使用的情况，因此把‘ㅓ’加上括号，表示还保留在元音体系中。接下来是东南方言，庆尚方言。如前所述，因为不使用‘ㅗ’这个元音，所以使用‘ㅡ’或者‘ㅓ’来代替‘ㅗ’的位置。还要看一下西北方言，即作为今天朝鲜文化语基础的方言。西北方言存在年龄，即年辈上的差异，以光复后出生的说话者为标准的话，他们的元音体系比东南方言更为简单，特别是不怎么使用元音‘ㅡ’，还有元音‘ㅗ’甚至基本上不使用，所以特点就是后舌元音的话，几乎只能观察到使用3个元音。例如，西南方言中，把韩语标准语的‘어머니’叫做‘오마니’，或者把‘아버지’叫做‘아바지’的情况。如果思考一下‘어머니’的‘ㅗ’和‘ㅓ’还有‘ㅗ’和‘ㅓ’的替代关系的话，可以看出西北方言中‘ㅗ’这个元音不太常用。‘아버지’也是一样，元音‘ㅓ’在方言中也能观察到，但是‘버’中的元音‘ㅗ’被‘ㅓ’替代了。

另一个方言音韵体系的重要特征之一就是济州方言。济州方言中最有特点就是至今还使

用‘·’，在其他方言区完全观察不到‘·’的使用情况，虽然标准语和其他地区方言中不使用‘·’，但是济州方言中却能唯一观察到。这个‘·’是历史上本来就存在过的元音，不过在中部方言或者东南以及西南方言等其他所有地区，‘·’消失后，便不再具有作为元音的资格，但是在济州方言中，可以看出它仍然作为元音的一个音素占有一席之地。

6차시 한국어 방언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 - 몇 가지 예시

我们已经一起学习了韩语的音韵特征. 现在我们将一起学习韩语的语法特征.

学习语法特征之间, 首先要了解基本的语法单位, 那就是词. 词是最小的独立形式, 从形态学上讲, 词是指不需要其他要素的辅助, 在句子中能够独立运用的单位. 例如, 在‘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这句话中的词分别有‘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 像这样, 可以说‘이렇게 ‘그 나무 아직 안 심었다.’是由5个词组成的句子. 还有比这种词更小的单位, 是称为语素的单位. 词一般是不需要其他要素的辅助能够独自即单独使用的单位, 韩语中的助词是个例外, 虽然不是独立形式, 不过很容易被分离出来, 所里也被认为是词.

那么, 把词按照意义区分, 让我们一起来了解一下系统的韩语词性分类. 首先看一下体词对应的名词、代词、数词. 名词是指表示事物名称或者表示状态及事件的词语, 比如说‘사람, 책, 손’这些词. 代词是指代替这些人或事物名称的词, 比如‘나, 너, 그’나 ‘그녀’这些词. 数词用来表示事物的数量或顺序, 指的是‘하나 둘, 일, 이, 첫째, 둘째’这样的词.

接下来是冠词和副词, 这种冠词和副词也被称为修饰语, 冠词在体词前面, 用来具体修饰体词的内容, 指的是像‘새 책’的‘새’, ‘흰 옷’的‘흰’, ‘모든 사람들’的‘모든’这样的词. 副词在谓词或者其他成分前面, 使他们的词义更为明显, 指的是“빨리 가라”的‘빨리’, “천천히 와라”的‘천천히’这样的词. 另外, 说话者本能的惊讶, 表示惊讶以及感受, 招呼 and 应答的词形成一个词类, 称之为感叹词, 指的是‘아, 야, 와’这样的词.

前面讲过, 韩语中能够独立使用的不仅有词, 例外的是助词也被分类为词. 助词附着在体词或副词、词尾上, 用来表示他们之间语法上的关系, 或者起辅助作用的词. 指的是‘철수’가的‘가’和‘영희를’的‘를’, ‘나는’的‘는’还有‘집에서’的‘에서’这样的词.

最后, 谓词对应的有动词和形容词, 表示事物的动作或行为的动词, 像‘가다, 먹다’, 以及表示事物的性质或状态的形容词像‘좋다’或者‘곱다’等都是谓词.

之前在韩语的语法特征中, 讲过韩语在类型学上属于黏着语. 作为黏着语, 韩语的重要特征之一就是存在助词和词尾这种语法单词. 助词大致分为三类, 分别是格助词和补助词以及连接助词. 首先看一下其中的格助词, 格助词分为表示主语, 即, 使前面的词具有主语资格的主格助词, 和使前面的词具有谓词资格的谓格助词. 像‘이/가’或者‘께서, 에서, 서’这样, 使主语具有主语资格的词就是主格助词. 这些助词分别以不同的形态或发音也用于方言. 还有, 谓格助词‘이다’的‘이’和宾格助词‘을/를’, 再就是补格助词和主格助词的形态相同, 也用

‘이/가’来表示。另外，冠形格助词、副词格助词、呼格助词等7类助词同属于格助词的下级分类。

主要用在先语末词尾后面，表示某个词的意思结束的词尾叫做语末词尾。语末词尾可以按照语法意义，即功能分为终结词尾、连接词尾、转成词尾。终结词尾的分类和句子类型的5个标准一致，可以分为叙述形词尾‘-다, -ㅂ니다, -습니다.’、疑问形词尾‘-느냐, -니, -는가’、命令形词尾‘-어라, -거라, -너라’、共动形词尾‘~하자, ~하세’的‘-자-, -세, -ㅂ시다’、感叹形词尾‘-구나, -군, -구려’。连接词尾本来是指连接各个句子的词尾，原来是两句，以对等的关系把两句连接起来的连接词尾有‘-고’和‘-며’，表示从属关系的连接词尾构成了上句被下句压起来的结构关系，从属连接词尾‘-어, -자, -면, -니까’作为辅助连接词尾，起到连接前面主谓词和后面辅助谓词的作用。辅助连接词尾有‘-어/아, -게, -지, -고’等。另外，还有把原来是动词或者形容词的词变成看起来像名词或者副词的词尾。转成词尾包括变成名词形的‘-음, -기’和变成冠词形的‘-은, -는, -을, -던’，还有变成副词形的‘-게, -도록, -듯이’等。

现在我们将了解一下韩语方言的词汇特征。想要了解特定的韩语单词在各个地区的使用差异，简单的方法之一就是方言地图。国立国语院是负责制定韩语的语言规范和编纂字典以及地域方言的保存等，有关韩语的研究和制定相关政策的机关，这张图就是在国立国语院运营的网站上搜索到的，该图来自国立国语院运营的地区语综合信息网。这其中可以看到韩语‘가위’在各个地区是以什么形式被使用的。请大家也务必通过搜索谷歌或者NAVER，登录国立国语院的综合信息网进行浏览。

那么我们再回到这张图中，可以看到韩语的‘가위’在各个地区是以不同的形式被使用的。首先看一下用红点标注的部分，这是使用标准语‘가위’的地区，可以看到有首尔和京畿地区、江原道北部、庆尚北道的部分地区。但是，从方言地图中可以看出，不是标准语‘가위’的形式在更为广泛的地区被使用，大体看一下也会发现有众多用蓝色方形标注的地区，这是代替‘가위’使用方言‘가세’的地区。还有，有的地区只使用‘가세’，但是也有的地区同时使用标准语‘가위’和‘가세’。发音虽然相似，也有使用古韩文字母‘·’形态的‘ㄱ세’的地区就是济州方言区。

另外从行政区划上，庆尚道地区的东南方言区‘가시개’形式的使用最为广泛，还以‘가씨개, 가시개, 까시개’这些形式出现。接下来是韩语的‘벼’，从‘벼’的方言地图上可以看出它在各地区以什么形式被使用。韩国是传统的农耕社会，认为种水稻是最重要的工作，因此，对于韩国人来说‘벼’这个词被认为是非常重要的词。从地图上显示的情况可以看出，中部地区使用最为普遍的是‘벼’这个词，还有与其形态相似的‘베’。另外，在中部以南地区，出现了比‘벼’使用更为普遍的词，就是‘나락’，无论东西，中部以南全域都使用‘나락’这个词，部分使用‘나락’，但是‘베’也同时使用的地区也存在。另外，特别的是在济州地区不是‘나락’，而是以‘나룩’，

나룩'的形式出现, 不仅如此, 还具有使用'나룩, 나룩'的同时, 也一起使用'벼, 벼'等特点. 在忠清南道部分地区, 也有直接用'쌀'来表示'벼'的情况, '쌀'本来是指水稻脱壳后的粮食, 不过从方言地图中可以看出, 在这些地区'쌀'和'벼'是没有区分的.

现在看一下韩语的'마을'. 标准语'마을'具有在韩国全境均有分布的特点, 可以看到这个词遍及红点标注的韩半岛南部全域. 可以观察到部分地区也用'말'或者'큰말'来代替'마을'. 有意思的是除了首尔京畿和江原地区, '마을'和'동네', 即'ㅏㅏ'的'동네'和'ㅑㅑ'的'동네'这样的形态具有广泛存在的特征. 还有庆尚地区的情况, '마실'这种形式出现的比较多, 可以说, 这是体现'마을'的古语形态是'ㅁㅊ'的痕迹, 还有比这个更加明确的保留下来的古语形态, 就是济州地区的'ㅁㅊ, ㅁㅊ, ㅁㅊ'这样的形态.

最后来看一下韩语'달걀'的方言地图. '달걀'是汉字词'계란'所指对象的固有词, 像地图中看到的一样, 各地呈现出多种多样的形态, 用蓝色方形标注的是'달걀'以'계란'的形式出现的, 主要在首尔京畿和江原部分地区, 以及忠清地区发现, 但是相比'달걀'单独出现, 更主要的是和其他形式共存的情况. 根据地区不同, 也使用像'달기알, 달걀'这样的形式或者'닭알'这样的形式. 在庆尚地区和全罗地区以及忠清部分地区, 还以'달걀'或者'다알걀, 달가알, 달구알'的形式出现, '닭알'主要出现在和忠清地区距离较远的南岛地区, 韩半岛的最南边的地区. 像这样, 不存在地域上没有关联性的地区也能观察到相同的形态. 最后, 在济州方言中可以看到'ㄷ세기', 指的是'닭의 새끼', 因为'달걀'是'닭이 낳은 알', 所以很容易推测出使用这种表达方式的原因.

至此, 我们通过各种词语的例子, 一起学习了韩语的个别单词在不同的地区以何种不同的形式来使用的情况.